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시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배움이 시작된다. 부모 형제 스승 선후배 친구 등 숱한 인연 속에서 '선생(先生)'을 만나게 된다. 그를 통해 지식은 물론 지혜를 습득한다. 특히 몸을 주신 부모와 사람을 만들어주신 스승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요즘은 교육 현장에서 조차도 사제간의 도리와 정을 찾기 쉽지 않다. 15일 스승의날, 단 한송이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가르침의 은혜와 보답의 정신을 새겨야하겠다. 삼계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의 사제관은 그래서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편집자 주)

부모 섬기듯 스승공경

사제(師弟)의 의(義)는 자연스러운 가운데 감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깊이 믿어 상대를 자기처럼 여겨서 해가 돌아는 일을 상대에게 요구치 말며, 예의를 숭상하여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며, 온화하고 성실하여 서로 원망해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제자와 스승 사이는 양쪽이 다 참되고 성실해야 한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돌보아야 한다. 첫째는 불법에 의지해 조어(調御)함이요, 둘째는 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그 질문하는 바를 따라 망념을 깊 풀어줌이요, 넷째는 그 선지식임을 보여 줌이요, 다섯째는 자기의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아끼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요 둘째 존경해 봉사함이요 셋째 존중해 기대함이요 넷째 가르침을 따라서 어기지 않음이요 다섯째 스승으로 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결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효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같이 해야 하느니라.
(중심경)

스승 공경하기를 부처님 공경하듯 해야 한다.
(무진의보살경)

제자는 모두를 스승에게 의지함으로써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된다. 마치 막 시집간 새댁이 시부모를 섬기듯, 응당 부끄러움을 지녀 그 가르침을 청수(聽受)해야 한다.
(해설도론)

온갖 만물로 공양한대도 스승의 은혜는 못 다 갚는다.
(욱기니월경)

만약 사람 중에 내 제자로부터 계를 받고 나서 도리어 그 스승을 질투하는 자가 있다면, 이사람은 기필코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제구경)

조계종 의제 개혁

'의제위' 구성 · 6월 공청회 … 승복으로 법계구별

비구(니), 사미(니)의 승복과 가사가 빠르면 금년내에 차별화된다. 또한 같은 법계내의 승복과 가사는 통일되고 단계별로 법계에 따라 가사의 형태가 구별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9일 종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제개혁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율사를 중심으로 의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은 "종단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무질서한 승가의 의복을 정비, 위계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자료수집,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왔다"며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를위해 이날 종진 성우 철우 무관스님등 종단 계단위원을 지도위원으로하는 의제위원회(위원장 법타 · 총무부장)를 출범시켜 의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제위원회의는 1단계사업으로 △비구(니)와 사미(니)의 승복, 가사구분 △같은 법계내의 승복 및 가사를 통일하고 2단계로 △법계에 따른 가사 차별화(승가고시, 법계등과 연계) △모자 신발 내의등 의제관련용품의 표준화 실시등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 1단계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계종 일각에서는 "사미(니)승은 승려예비과정으로 정식승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장, 가사가 비구(니)와 동일해 승단의 무질서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제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조계종의 의제는 1962년 청담스님이 주도하던 통합종단에서 정한 의제법에 따르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의제법에는 사미(니)는 만의를 수해야 하고 법계에 따라 가사를 이십오조(법계 1급) 십오조(법계 3급이상) 구조(법계 5급이상)로 나누고 있다.

조계종은 6월부터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의제개혁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경 의제법 개정과 함께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연등만드는 벽안의 동심 부처님오신날 맞아 외국인 어린이들도 봉축 연등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일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외국인 어린이들과 가족이 모여 한일 한일 정성들여 연등을 만들었다.

문체부案지지 여론 확산

"건교부案 채택땐 발굴조사 불참" 고고학회

"건천역사 중심 신도시 개발하자" 동대교수회

고속철도 경주노선 최종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경주도심을 관통하는 건교부안과 문체부안을 비교하는 포럼이 지난 6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 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등은 "경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로 가꾸는 방안은 문체부가 제시한 건천노선"이라며 문체부안 채택을 강조했다.
(관계기사 3면)

또 경실련과 고고학회 등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 "문체부가 제시한 건천-화천노선을 채택해 현재의 경주시는 고도로 보존하고 경주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건천역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로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고고학회(회장 임효재 서울대교수)는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건교부안이 확정된다면 천년고도 경주의 전면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건교부안이 결정된다면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발굴조사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고학회의 성명은 이미 8백여 회원의 결의를 거친 것이다.

종교유휴공간 보육시설 건립 지원

보건복지부, 5천만원까지 보조…교사 2명 인건비도

어린이집 개설이 손쉽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6일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에 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혀 어린이 포교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지침은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명의로 된 5백평이상의 신도를 확보하고 최소 유휴공간 22평을 확보하고 있는 사찰에서 어린이 집을 개설할 경우 개보수비 장비비 놀이시설 설치비 교재 · 교구 구입비명목으로 정부가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육교사 2인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지원방안은 지난해 5월 영 ·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올해 3천2백92억원을 배정, 2천1백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종교단체의 보육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1인당 월 2만원의 간식비를 보조하고 탁아와 함께 유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칠보사유치원의 이성주원장은 "기존시설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시설설치비와 인건비까지 부담해주는 신규보육시설설치에 대해 교계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은 중 · 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 · 고교에 보급합니다.

동참해주신 분



◇ 무애스님



◇ 윤용숙씨

△지선 성흠사 주지: 경남 하동중(1구좌) △무애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장: 음성고 무극중 금왕공고 삼척중(4구좌) △윤용숙 한국여성문제연구회회장: (10구좌) △유옥선: 노원 을지국교(1구좌) △청아 동국대학인스님: (2구좌) △현종훈: (1구좌) △김윤곤: (1구좌) △김잉정: (2구좌) (5월 9일 현재 총205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cm를 높이 55cm 폭 35cm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강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참여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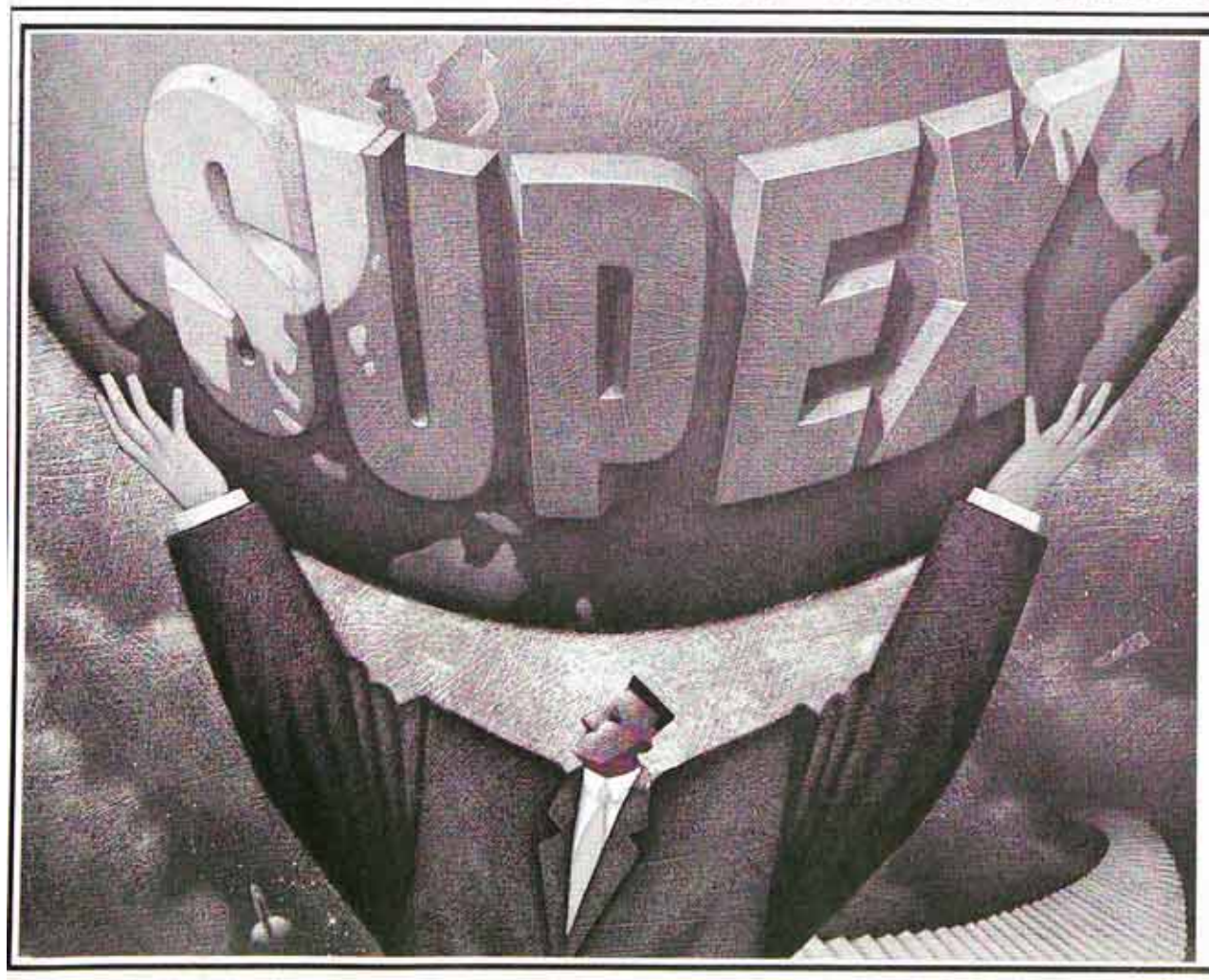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본사에 연락없이 미륵반가상보급 동참금을 은행에 입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동참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은행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봉축위 행사 14면
'싸이버책방' 등장 12면
사찰 주말농장 증가 11면
파계사 영산율원 개원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2-5560-4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사 설

건천노선안 지지 이유

경주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경부도심통과의 결사반대입장을 여러차례 지상을 통해 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이며 세계문화유산인 경주를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역사관과 세계관이 삐뚤어진 일부 정치인·경제인들의 이기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천년이상 우리 조상의 얼이 숨쉬고 있는 옛도시의 찬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서원에서다.

이제 경부고속철도의 노선문제가 정부 부처간의 갈등·대립으로 비화되었다. 옳고 그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발을 지상 목표로 하는 건설교통부는 기존의 이른바 '형산강노선'을 아직도 고집한다.

반면 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건천-화천을 잇는 경주외곽을 통과하는 안이다. 경주일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정한 뒤 관련자료를 근거로 경주 옛도시를 복원하고 건천지역에 신경주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경주 도심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신도시 이주우선권을 주어 민원을 해소하면서 죽어가는 경주를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천년 옛도시 경주를 지키고 복원하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도심통과노선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주노선백지화를 주장해 왔지만, 이제 문화체육부의 건천-화천통과안에 지지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경주는 우리민족의 문화재의 산실이고, 그 자체가 박물관이므로 개발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의견보다는 문화재관리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동안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는다. 물론 문화재보호의 주무관청으로서 문화재 파괴를 묵인하거나 조장·방조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더이상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문체부가 이번 경주고속철도 도심통과에 반대하면서 건천우회통과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구태의연했던 군사문화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역사 바로세우기'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다.

둘째,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용하여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문화국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때이다. 그동안 범국민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온 '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백지화추진위원회'도 문체부의 건천노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일은 고속철도 경주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경주확정역사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가 기존의 건교부안 지지입장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이 점을 깊이 새겨서, 더이상의 국론분열이 없기를 바란다.

셋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문체부안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의 발표도 있었다. 건설비용과 경주경제의 활성화를 검토해도 쉽게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은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민족의 얼과 아름다운 삶의 역사현장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문체부의 건천통과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의 심판은 냉엄하다는 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열린마당 사찰종토세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 결의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통사찰 경내지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전통사찰 소유토지는 금년 1월1일부터 전면 비과세 대상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방세법 개정이후 첫 과세일을 앞두고 조계종 기획실이 최근 발간한 대응지침서를 중심으로 교계의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경내지 범위 놓고 지자체와 해석 대립
부당과세땐 6월 25일까지 이의 신청

현황과 대응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이후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가 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찰의 경내지정의와 사찰토지의 비과세 범위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와 다르다는데 있다. 종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경내지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1989년 도입된 조세다. 그러나 종토세신설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게 사찰소유토지에 조세를 부과해 불교계가 해결해야할 숙원사업이 되었던 것이다.

사찰에 부과되는 토지관련 세금은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조계종의 경우 93년~95년까지 3년간 총 46억5천2백여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종토세부과는 309개 사찰 8억6천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납부액은 14.39%에 불과해 사찰토지에 대한 종토세부과의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납액의 58.80%가 불복신청을 하고있으나 불복절차없이 미납한 21.95%(1억8천8백여만원)는 종토세규정 개정과는 관계없이 납세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납 종토세는 납기후 세액의 가산금5/100, 그후 매 1개월마다 12/1000씩 60개월까지 중가산되고 토지의 압류 및 공매처리가 된다. 따라서 종토세가 부당 과세된 경우 먼저 불복절차를 밟고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토록 해야 한다.

각 사찰은 6월1일부터 15일까지 과세공람기간동안 부과된 사찰토지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6월16일~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 결정일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재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하게 과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식행사용 토지·사찰 풍치지구도 포함

경내지 범위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194조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항으로 비과세대상의 토지가운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를 추가했다. 따라서 그동안 경내지 범위규정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보호구역(영업행위 금지구역만)으로 해석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익용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를 비과세하게 됐다.

새로 법으로 규정한 경내지범위는 6개 항으로 ▲경내건물(입목·죽 기타 건물외의 정착물을 포함)이 지상물로 되어 있는 일획의 토지-사찰건조물이 지상에 있는 토지로 등기단위인 한 개의 토지를 기준으로 한 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필지들로 연결된 하나의 구획을 의미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종교적신앙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불교적형상과 스님이 수행하는 토굴이나 암굴을 참배하기 위한 진입로 통로 도로 및 이의 유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를 의미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불공용토지는 불전에 공양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경작지, 과수원 등을 말하며 수도용토지는 스님의 토굴이나 암굴 및 이에 부속하는 토지 ▲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경내건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전통사찰은 1987년 이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국 847개(조계종 701개)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법인소유 조림지일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본 법인소유의 조림지에 유실수를 심어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간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확한 농산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공급하는 이 임야에 대해 종토세가 부과되는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없고,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일 때는 종교법인과 별개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가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이다.

주지 개인명의 소유지

사찰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법건축물로서 적법하게 준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사찰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속토지소유가 사찰주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종토세 비과세여부는.

-종교단체가 사찰주지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면 준공검사미필인 경우라도 관계없이 사실상 사찰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다.

종교용 토지 1년내 건축

종합토지세 적용에 있어 법인이 종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지 1년 이내에 건축을 하게 될 때 비과세대상이 되는가.

-비과세 된다. 그것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중일때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말사소유 임야일때는

조계종 전통사찰의 말사다. 인접한 임야가 사찰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종토세가 부과됐다.

-사찰림은 산림법상 정의가 불투명해 해석의 차이가 많아 주의해야한다. 본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말사와 인접해 있지만 본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하여 과세가 된것 같다. 또한 과세관청은 사찰림을 사찰의 존엄과 풍치를 위한 임야로 보아 사찰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는 말사와 인접해 있으므로 사찰림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를 주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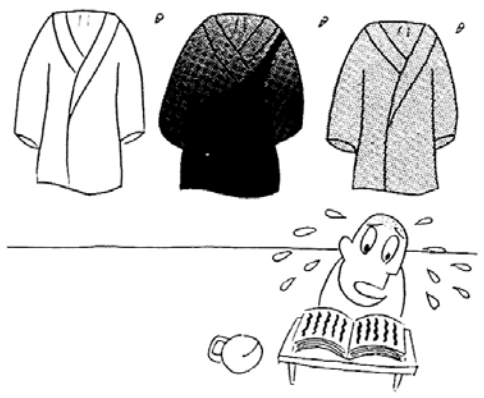
등기부상 압류상태 토지

전통사찰로서 사찰소유토지에 대해 종토세, 토초세가 과세되었으나 체납했다. 지난해 등기부상 압류가 되었고 이후 공매절차에 들어가 낙찰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위 사찰의 경우 사찰에 근접하여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한 토지로 볼수 있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3조의 경내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찰소유토지의 조세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된 경우 행정소송과 별도로 미납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승복색깔로 덕(德)을 알수 있다구요?

목어

"나는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힘든 일도 이겨내겠습니다. 나는 소질과 재능을 갈고 닦으며 밝은 꿈을 키우겠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 어린이날을 맞아 제정한 '서울어린이다짐'이다. 서울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지난 5일 이 다짐을 낭독하며 '이렇게 크겠습니다'를 마음속으로 서약했을 것이다.

이 땅의 새싹들이 모두 이렇게만 자라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물론 사회도 국가도 장래걱정이 필요 없겠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이 다짐'을 다짐해도 그 성장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다짐은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G-7 성취의 주인공들

어른 공경과 예절은 하루 아침에 몸에 배거나 익을 수 없다. 대가족제를 꺼리는 오늘의 핵가족 상황에서, 더구나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과연 어른공경을 배울 수 있을까. 아무리 재능을 갈고 꿈을 키우고 싶어도 과외에 지치고 입시에 지치면 꿈은 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저질만화·비디오, 학원폭력, 결손가정 등 각종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지나치게 과보호하여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나약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자.

얼마전 정부는 21세기 한국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을 세계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7위 교역규모 6위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G-7 전략 성취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21세기의 주인공인 신세대를 바르게 이끌고 새싹·굼나무들이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고 닮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다짐'을 제대로 익히면서 올곧은 성년으로 입문하도록 부모도 학교 선생님도 종교인도 어른들은 모두 나서자. 마치 땅고르고 묘목 심어 물주고 가꾸듯이. 어린이 다짐과 함께 이런 어른들의 다짐이 있을때 비로소 5월은 5월다울 수 있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최선을 다하라

지나간 일에 근심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반걱 집착하지 않는다. 현재에 얼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뿐 딴생각 하지 않는다.

〈잡아함경〉

협찬 보 명 사
주지 방상원
TEL.(02)855-2834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부산 봉축연합대법회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연합대법회를 5월 19일 오후 2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봉행합니다.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될수 있도록 많은 불자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1996년 5월 19일(음4.3) 오후2시 봉축법요식
■ 장소 : 부산사직실내체육관

식 전 행 사
12:00 ~ 14:00 관불의식
13:00 ~ 13:30 사물놀이 및 경품추첨 (태국여행권외 70명)
13:30 ~ 14:00 법음

식 후 행 사
15:30 ~ 16:00 초전법륜시연
16:00 ~ 17:30
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우리가락 축제한마당
지휘 : 배양현 소프라노 : 민상순 교수
초청가수 : 심진스님, 칠갑산의 주병선외 다수 출연

장엄물차량 제등행렬
18:00 ~ 21:00
코 스 : 행사장(사직실내체육관) ~ 연산로타리 ~ 양정R ~ 서면R ~ 부산역 ~ 시청 ~ 충무동 ~ 구덕운동장 (회향지점)

봉축 연화발사 (불꽃놀이)
21:30 중구 영주동 대청공원

문의전화 ☎(051)867-0501 FAX 867-0504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대 회 장 백 성 오 수석부대회장 변 춘 광
준 비 위 원 장 허 도 봉 봉 행 위원장 류 진 수

문체부안

문화재보호·경제성 '월등'

경주고속철 백지화 추진위 노선비교 포럼

지난 6일 고속철도경주통과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가 주최한 '건교부안과 문체부안의 비교'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장충식교수(동국대 불교미술사학과) 조명래교수(단국대 지역개발학과)는 "부득이 경주를 통과한다면 문화재보존을 통한 경주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경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로 가꾸는 방안은 문체부가 제시한 건천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열린 '문체부안-건교부안 비교'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문화재보호와 경제성 측면에서 문체부안이 우월하다며 문체부안으로 노선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도심통과안 工期길고 비용도 증가

노선외곽화 신도시 개발 이익 시민에 환원

■건교부안과 문체부안의 비교(이선복교수)=고도 경주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생각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문체부의 건천-화천노선이라고 생각한다. 문체부안의 장점은 지형적으로 남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경주일대가 모두 문화도시이지만 핵심지역인 왕경과 남산이 있는 이른바 3천과 5악이 둘러싸고 있는 일대는 살아난다는 점이다. 보존해야 할 핵심지구는 살리고 문화재보호로 인해 발생했던 경주시민의 불만은 건천쪽에서 해소토록 하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를 꾀하는 안이다.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형산강노선은 서울에서 내려오다 동국대 지점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8.4Km를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망성리에서 지상으로 나와 이조리에 역사를 건설하겠다는 안이다. 건교부는 남산 보호를 위해 역세권 개발은 하지 않고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의 환승역으로만 설치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루 이용객이 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조리역 주변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속철도 건설로 미칠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단견이다. 건교부가 이조리역 주변을 개발하지 않아도 경주시에서 개발할 것이다.

건교부는 또 형산강노선이 건천노선보다 공사기간이 짧으므로 비용절감의 이점이 있다고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으나 이도 타당하지 않다.

건교부 노선의 지상화구간이 문체부노선보다 10㎞가량 길다. 건교부노선은 대규모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주의 핵심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발굴인력을 모두 동원해도 건교부안이 문체부안보다 발굴기간이 최소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공기지연으로 1년에 약 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어느 노선이 경제적인가는 자명하지 않은가.

■경주 문화유적의 위기(장충식교수)=고속철도가 경주도심을 관통할 경우 경주 문화재 보존에 치명적 손상을 자초할 것이란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驛舍) 건설예정지가 민족문화의 성지인 남산 그리고 이와 이웃한 포석정 남쪽이고 보면 이 지역 역세권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하다.

한가지 덧붙여 지적해야 할 것은 경주시 천북에 추진중인 경마장 건설에 관한 부분이다. 어떻게 이같은 기상천외의 발상이 하필이면 경주에 입안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문화유적 도시로서의 경주를 일종의 노름도시와 동격시하는 발상이다.

경주는 가장 경주다울 때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이지 경주가 대도시를 흉내내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주를 망치는 것이다.

시내를 관통하려는 고속철도의 추진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미 논의된 시외곽 건천노선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재천명한다. 호국불교의 근본도량 사천왕사를 갈라놓은 동해남부선의 시내통과 선로 철거도 건천노선만이 가능하다.

■역사(驛舍) 건설이 경주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조명래교수)=문화재 훼손의 최소화와 고도로서의 경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은 노선의 외곽화와 건천지역 역사 건립이다. 물론 경주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책으로 통과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역사(驛舍) 개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건천지역에 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천노선은 가능한 서쪽지역을 활용해야 하며 △기존의 취락지구를 재개발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또 △역사 지역은 문화재보존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신·구도시 순환교통망으로 경주를 통합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 이익은 그동안 문화재보호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온 시민들과 왕경지구 복원을 위해 환급해야 한다.

또 도심은 80년대 서울 테헤란로 개발처럼 건물의 높이나 형태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지구상세(詳細)기법'에 따라 복원하며, 경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신도시개발은 경주와 연고가 있는 민간기업 등이 투자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리=정성운 기자

선학원 제적원 제출 그 이후

"전국수좌회 중재 나섰다"

정관개정 요구등 갈등요인 논의

최근 조계종과 선학원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4월 29일 동대구 그릴에서 전국수좌회 스님들이 종단과 선학원 양측의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국수좌회가 선학원문제해결의 새로운 중재원으로 떠올랐다.

선학원측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진허스님은 "조계종 선학원대책특위가 요구하고 있는 △명칭변경 △정관 목적에 조계종지봉대 삽입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재단임원추천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조계종 귀속 △정관개정시 조계종 중앙종회 동의등은 법리상 맞지않으며 타종단스님과 재가신도 창건주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에서는 호법부 효림스님이 "조계종 종지를 따를수 없고 조계종 승려증을 반납하는등 현이사들이 분종 및 창종 명분만을 찾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창종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징계 결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대화의 노력을 했으나 거부, 선학원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보고받은 인각 혜국 휴암 스님등 수좌 10여명은 "수좌들이 섭불리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측에 성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모임에 참석한 수좌스님들은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이 분종까지 가도록 관망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선학원문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2일 제주 남국선원 개원식에 앞서 전국수좌회 스님들이 선학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수좌회는 전국 선방수좌들이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이번 선학원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설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회주제·공동선언문 합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 2차 예비회의

지난 8일,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2차예비회의가 공동선언문과 대회주제등의 일정을 최종합의하고 막을내렸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문화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삼국이 본대회에 앞서 일정을 합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속에 성과를 올려 이번 모임은 더욱 뜻깊은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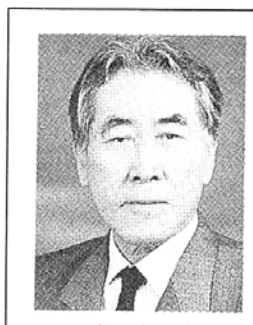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1차회의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었으나 중국측이 문구를 짚어가며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제시해 난항을 겪었다. 중국측은 '21세기를 주도할 한중일불교의 역할'이라는 본대회 주제에 대해 "한 종교가 21세기를 주도하는 것은 타종교나 정치적으로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 '21세기에 있어서의 한·중·일 불교의 사명'으로 바꾸었다. 중국측은 또한 공동선언문 초안에서도 '동북아 가치질서 창조'는 과거 일본의 역사적과오를 상기할 수 있으며 '평화수호라는 미명하에 개발된 핵'에 대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핵무기는 언급하지 않고 개발부분만 강조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이들 문안을 삭제했다.

특히 3일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삼국 실무대표들은 공동선언문에 △문화, 학술교류 △인력교류와 정보교환 △상호간의 참관 방문과 교류 △환경보전과 평화수호에 대한 삼국 불교도의 역할 △세계난민구제사업의 협력기구구성등 7개항의 세부실천사항을 마련해 실천여부가 향후 삼국불교교류회의 성패의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지하스님(종단협 부회장)은 "본대회에 앞서 대회주제와 공동선언문이 합의되어 서울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삼국 불교도의 공동역할을 모색하게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특별기고

문민정부의 문화의식



이 기 영

〈고속철경주통과백지화 추진위장·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가장 행복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정부가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다. 정부에는 나라 일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중추적 조직이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제도하의 책임자들인 만큼 국회와 국민앞에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는 응분의 의무를 갖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권력구조 내부의 매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당하고 부정한 정치작태로 인하여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상실하고 굴욕감을 체험해야만 했던 쓰라린 역사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 경주

나는 한민족의 문화적 전통, 특히 그 정신적 유산에 관해 탐구해 온 학자로서 신라문화의 위대성을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한국민으로서의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 왔다. 그 찬란한 신라문화의 요람이 바로 경주이다. 그 고도 경주가 지금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의 고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문화인·지식인이 높이 평가하는 세계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우리 정부의 건설교통부가 고속철도를 경주 도심으로 통과하도록 설계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 나라 학계 문화계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하게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고 다시한번 이 나라에 사는 서글픔과 슬픔을 금할 길 없어 이 글을 쓴다.

나는 건교부가 자기네 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이라면 천번이고 만번이고 양보할 용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첫째 이유인, 지금까지 설계와 조사등에 소요된 경비가 엄청나며 이제 노선을 바꾼다면 다시 소요될 비용이 공기의 연장에 따라 더욱 증가된다는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왜 애당초 그런 잘못된 계획을 모든 국민들 특히 이 나라 학계 문화계 종교계와의 광범한 공개토론없이 은밀하게 진행시켜 왔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로 건교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문화재훼손이란 말도 안된다는 어투인데, 그런 사고방식엔 문제가 있다. 개개의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고 발굴해서 박물관에 보존만 하면 된다는 논리에는 중대한 착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경주는 그 지역 전체가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그 경관을 파괴하고 고도로서의 면모를 말살하는 행위가 어떻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건설이라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적 양식(良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적 문화적 향기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지 그 유물을 박물관에 아무리 전부 다 모아 놓는다해서 그 박물관이 고도 경주라는 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에 어찌하여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가.

한번 파괴된 고도가 다시 고도로서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야만적 파괴전쟁도 아닌데 백주에 이 시대의 물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파괴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좌시만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이 시대에는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과소평가하는 일부 인사들이 있다. 역사를 평가하고 문화를 보는 시각에는 각 개인의 주관이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라. 같은 정부안에 문화의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부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있다. 이 문화체육부가 비록 많은 예산을 갖고 공사를 책임지는 부서가 아니라, 그 권력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부서의 전문적 문화분야에 관한 의견은 그 무엇보다도 주의깊이 경청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그 목소리를 짓누르고 힘으로 당초의 자기네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심사만을 노출시키고 있다.

민족혼 무시해도 좋은가

이미 경주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일제가 사천왕사의 경내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부설한 것은 식민통치자들의 만행이라고 치자. 그런데 고도 경주에 경마장건설을 확정하고 건설중이라는 사실도 빛나는 우리 문화전통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고속철도의 경주역사(驛舍)를 남산 코앞에 세우고 9만명의 인파가 매일 그곳을 출입하고 포항 울산으로 가는 연계 자동차도로를 남산 주위로 통과하게 한다면 돈많은 사람, 돈간을 아는 사람들의 편의는 제공될지 모르지만 고도 경주는 죽는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의 정신풍토를 걱정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아량을 베풀어 주는 믿음직스러운 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총괄표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처
자비의 손길	1.시각장애인 복지 기금 타령 잉잉잣집	4월 21일 오전 9시	남문시장내 신라다방	대광명인불자회
	2.상인동 기스복발 희생자 추모제	4월 28일 오전 10시	상인동 영남중고 앞 동방상가앞 주차장	대구광역시사원주지연합회
	3.명인불자 갓바위 중반대회	4월 28일 오전 11시	갓바위 주차장-갓바위	대광명인불자회
	4.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돕기	5월 12일 5월 13일 5월 24일 5월 22일 오후 5시	각 가정 자대결연 독거노인 및 청소년가장집(11곳) 수성구청	천태종 대성사 자비의전화 자비봉사단, 청수사/봉축위사회부 주관
	5.양로원 위안방문법회	5월 15일 오후 2시 5월 8일 오전 11시	화성 양로원 무료급식소「자비의집」, 법화종 칠곡 구화사	봉축위 사회부 법왕사 경로잔치
	6.경로잔치	5월 11일 5월 16일, 5월 18일	봉축경로잔치(해당사찰 및 장소)	안일사 봉축경로잔치
	7.다시만 위안 면속 잔치 한마당	5월 17일 오전 12시 5월 20일 오후 2시 5월 20일	성서복지관/성서주공 대구소년 감별소, 대구 소년원	대구자원봉사센타/대한불교청년회/성서복지관/신당복지관/봉축위 사회부/해당 신행단체/천태종 대성사
	8.소년간병소 위로방문			
	9.대구소년원 봉축키넘법회	5월 21일 오후 2~4시	소년원 대강당	불교종교지도위원회
	10.대광명교원 사랑받는 귀국동포 초청법회	5월 22일 오전 11시	동화사/불국사 관광	조계종 9교본사 동화사
봉축 문화행사	1.고승선서화전 가족효도체육대회	5월 11일, 5월 12일	고승선서화전 봉덕초등학교	영남불교대학(한달간) 영남불교대학/남구청 관음사
	2.봉축기념 초/중/고 글쓰기-그리기 대회	5월 12일 오전 10시30분	팔공산 동화사 일대	청고련대구지부/바른글쓰기 후원 청소년문서보교회 어린이지도교사협의회
	3.찬불가의 밤	5월 13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천태종 대성사/시립 국악단
	4.교내 보고주간 선포	5월 17일, 21일	각 대학 캠퍼스	대학생불교연합회대경지부
	5.가족찬불가대회	5월 20일 오후 4시	고려예식장(본선)	조계종대구광역시신도회
	6.대불련 한마당	5월 21일 오후 7시	동아쇼핑 8층 이트홀	대학생불교연합회 대경지부
	7.법정스님 초청 '맑고 향기롭게' 행사	5월 22일 오후 2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맑고향기롭게운동 대구준비모임
	8.연등축제	5월 24일 7~9시	두류공원/7호광장/반월당 입덕	부처님오신날대구봉축위원회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주 관 처
봉축법회	1.봉축탑 점등식	5월 11일 18시30분 19시30분	1.시청앞 2.대구백화점 앞	대구봉축위원회
	2.군/민합동수계법회	5월 19일 10시 30분	2군 무연사	군불자/군인가족/청소년불자
	3.나라와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풍다의 밤"	5월 21일 오후 6시	프린스호텔 대연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4.평안과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대법회	5월 22일 오후 6시30분	2군 무연사 군법당	2군법사단
	5.봉축타종법회	5월 24일 12시	중앙공원	거사림 정법회
	6.관등기도	5월 24일	각 사암 및 신행단체 법도봉행	각 사암 주지, 각 신행단체장
	7.봉축대법회	5월 24일 오후 6시	두류공원대운동장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
	8.봉축법요식	5월 24일 오전 10시	사암/신행단체법회장	각 사암주지/지도법사/단체장
	9.중립학교 행사	봉축기간	능인중고/심인중고	학교장/교직원/교법사/불교학생회
	10.교도소 방문법회	봉축기간	대구교도소 법당	중교 교화위원회
	11.군부대 법회	봉축기간	해당 군법당	*2군 무연사 *50사단 심연사 *K2성무일승사 *3군수직원사령부 *육군통합병원/담당군법당
	12.경찰서 법요식	봉축기간	각 경찰서	경승단/경찰청 법우회
기타	1.청소년가장돕기/ 양로원 방문/ 소외계층 방문	해당시설	해당시설	사찰/각 신행단체

부처님 오신날 대구광역시 봉축위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김 무 공

법회 안내

석불사(02)712-1765

마포연화어린이회 일 오전10시
천일불교학생회 일 오후2시
천일불교청년회 일 오후2시
석불회 매월 1·3주 일 오전10시

선운사(02)993-3065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낮 1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금강정사(02)893-270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 수 오전10시30분

각명사(02)387-3510

신중기도 매월1~3일(음)오전10시
정기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만덕사(062)652-4920

연등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칠성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문빈정사(062)222-2202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5시
합동정진법회 넷째주 일 오전10시

관음사(062)223-7666

거사림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향림사(062)375-76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능해정사(032)519-5552

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월 1·3주 오후2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진부유치원 기공식 가져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지난 14일 총건평 7백여평 규모의 진부유치원 기공식을 거행했다.

부산 봉축탑 점등식 봉행



성오스님(범어사 주지)은 지난 6일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삼광사 주지 춘광스님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이필우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법주사 27대 주지 취임



혜광스님(법주사 주지)은 지난 3일 주지 진산식에서 제27대 법주사주지에 취임했다.

서울 해인승가 동문 정총



세민스님(서울·경기 해인승가대학 등문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수안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동문들은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등을 펼치기로하고 기금마련방안을 논의했다.

안양교도소서 수계법회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은 오는 15일 안양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 수계법회를 갖는다. 한편 스님은 지난 7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1천여명의 노인을 초대 경노위안잔치를 봉행했다.

노적사 요사채 준공식



종후스님(노적사 주지)은 지난 11일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요사채 준공식을 봉행했다.

정수사 불자예식장 개관

원광스님(부산 정수사 주지)은 지난 4월 23일 경내에 폐백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2백석 규모의 불자예식장을 개관했다.

보은사 부처님·탱화 점안

정수스님(보은사 주지)은 지난 2일 화천군 보은사 대웅전에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5위의 부처님과 후불탱화 3점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가졌다.

혜명보육원서 무료상담



명우스님(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은 지난 11일 혜명보육원을 방문, 청소년 성격·적성검사와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마음다스리는 법' 설법



법륜스님(불교환경교육원장)은 오는 19일 오전10시 성남정토법당 초청법회에서 '마음다리스는 법'을 주제로 법문을 한다.

성지순례·수련법회

종연스님(마하연 부평포교원 주지)은 마하연 불교교육원을 금강불교학교로 개명하고, 지난 10일 성지순례 및 수련법회를 봉행했다.

22일 다보법회서 법문

혜담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은 오는 22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日서 '한일문화비교' 강연



김용운씨(前 한양대 대학원장·본지 논설위원)는 지난 10일 일본 오사카(大阪) 교원국제교육연구소에서 '한일문화비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中 삼협여행사 한국대표 취임



장명중씨(대불련 동문)는 최근 중국 국영 삼협개발총공사 산하 삼협국제여행사 한국부대표로 취임했다. (02)722-3547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손현수회장(대현그룹)은 지난 9일 동국대에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한 모교발전 및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게시판

▲중국학술기행=고대사문제연구소는 8월6일~16일까지 중국학술기행을 갖는다. 백마사, 용문석굴, 소림사 등을 답사. 접수마감은 6월1일.(02)737-8196

▲청년불자 등반대회=정토포교원 청년정토회는 오는 25일~26일까지 덕유산에서 '96 전국청년불자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2)379-1650

▲차밍디스코 수강생모집=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차밍디스코 수강생을 모집한다. (02)817-8052

▲중국어회화 개강=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6월4일 개강하는 중국어회화반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421-6077

화촉 임영래씨(경불련 총무국장)은 26일 오후1시 서울 보문동 탑골승방에서 박명숙씨(경실련 간사)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기복 떠나 마음 자리 밝혀야"

한달새 6차례 잇단 대중법문 서 암 스님



지난 94년 4월 조계종 종정직 사퇴 이후 은둔하다시피 지내온 서암스님이 최근 잇따라 신도대중을 위한 법문을 설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 4일과 13일 정토회 주최의 대구 부산 서울 순회법회를 비롯 4월 29일에는 국회정각선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에, 5일에는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에서 주최한 군종법사 후보생 환영법회에서도 법문하는 등 최근 보름 동안에만도 5차례의 신도대중법회에서 법문을 설했다. 서암스님은 지난 13일 서울 건축사협회 대강당 법회에서 마음자리를 떠나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대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삶에 대해 지적하고 "현대과학들이 동양적 사상으로 전환하듯 내 마음을 떠나 밖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한 마음자리를 살피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암스님은 또 19일 오전10시 육군 30사단 호국불광사에서 봉행되는 봉축특별 초청법회 및 도량장엄 점등식에 참석, 법문할 예정이다.

스님은 현재 경북군위 제2석굴암에 주석하고 있다. 〈운〉

"안타까운 생명살상 막아야죠"

매일 교통안전법회 금강사 자 우 스님



금강사(주지 자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기도법회를 오는 17일 오전11시 금강사 제불보전에서 입재, 매일 오전5시와 11시 오후6시30분 정근으로 1년내내 봉행한다.

금강사 주지 자우스님은 "살아가기에 편하도록 만든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생명의 존엄을 널리 선양하고 부처님의 가호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겠다는 원력으로 교통안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에게는 교통안전스티커와 불경 등을 기증한다.

자우스님은 또 "금강사를 교통안전을 기원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명으로 횡사한 애혼을 천도하는 기도도량으로 정해 정진할 것"이라며 교통관계 사업 및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02)993-3744

부대법당 건립 추진 김 태 복 장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자일지 몰라도 군지휘관으로서는 공인일 뿐입니다.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믿음도 중요한 법이니까요"라고 말하는 1733부대 여단장 김태복장군. 김장군은 절대 자신의 종교를 장병들에게 강요하는 법이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접하고 느끼도록 하는 그만의 포교방법으로 전방경계부대인 1733부대를 모범적인 부대운영을 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군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월주스님 및 조계종 총무원 각부 부장스님들도 불자장성으로 모범적인 군복무를 하고있는 김장군에게 연신 장하다는 치사로 격려했다.

육사 26기로 입대해 오직 군인의 길을 과묵히 걸어온 김장군은 82년 김창기사단장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한 이래 군부대의 원만한 운영뿐만 아니라 법당건립 등의 불사에 관심을 쏟아왔다. 김장군의 지휘아래 건립된 5161부대 법당과, 국방부 호국 원광사 요사채 종탑 등의 증축불사 등은 불사에 대한 그의 관심과 애정을 가히 짐작케 한다. 김장군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33부대에 80여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 불자 및 군불자장병을 한데 모아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법당을 건립하고 있는 김장군은 군불교 진흥에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장사병 포교로 군인정신 함양



송월스님 고희기념 서화집 출판법회

송월스님 고희기념 서화집 출판법회가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태고종 혜초 총무원장, 보문종 혜일 총무원장, 원융종 일공 총무원장, 총화종 법은 총무원장스님과 신한국당 황병태의원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두권으로된 서화집에는 송월스님이 40여년간 쓴 서화 휘호 현판등이 실려있다.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개교 90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학술회관 중극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오녹원 동국대학원이사장, 서돈각 진흥원이사장 등 불교계 대표와 일본 불교대 다카하시 쿠지 총장 등 외국자매대학 총장 7명과 충남방적 유주형부회장, 최형우의원 등 정·재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석지형스님 대길상도 작품전 성황

옥룡자 석지형스님(소림정사 주지)의 대길상도 작품전이 지난 7일 서울 잠실롯데호텔 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날 작품전 개막식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교TV대표이사 태응스님 통도사주지 목산스님등 중진스님과 이수성국무총리 이의재 서울시부시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조해형 불교방송사장 홍인기 국회의원 신격호 롯데그룹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중진 간담회 종단현안 논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초청 중진간담회가 지난 6일 동보성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산(교육원장) 법타(총무부장)스님등 간부스님과 법달 성문 정우 종석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특별분담금사찰 주지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호법부장 혜창스님과 기획실장 현응스님이 선학원, 중앙승가대 이전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고 종단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대방사 '삼천미륵반가상 서원展'

대방사 주최 '삼천미륵반가사유상을 모시는 서원展'이 지난 8~14일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옹·서암스님, 월하스님 등 원로스님들의 글씨와 대방사 주지 도안스님의 서예작품 50여점이 전시됐다. 8일 개막식에는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 각묵·정혜·도성·현법·법해스님과 목정배교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동문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동국대학교는 지난 9일 롯데호텔서 제15대 국회의원 당선동문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축하연에는 14명의 동문 당선자 가운데 김영구 임인배(신한국당) 박상규(국민회의) 이긍규 이원범(자민련) 황규선(무소속) 당선자와 황경수 총동문회장, 민병천 전 동국대총장, 정각원장 법산스님, 석왕사주지 영담스님, 최재구(신한국당 고문)씨등 동문 2백여명이 참석했다.



선우도량 '티벳불교 워크샵' 열어

티벳불교 이해를 위한 워크샵이 선우도량(상임대표 혜담) 주최로 지난 3일 화계사에서 개최됐다. 티벳불교의 전통적인 교학과 수행법을 계승하며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드룩첸 린포체(티벳 드룩빠까꾸종정)를 초청, 티벳불교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이뤄진 이날 워크샵에는 도법, 법성스님, 화계사 국제선원 스님 및 신도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는 선우 자비의 등 점등법회

우리는선우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혜거스님과 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씨를 비롯 1백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혜거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세상을 밝히는 소임을 다하자"며 자비행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점등식을 마치고 오색연등으로 장엄된 장충단공원에서 제등행진을 벌였다.

봉 축

불교문화공간 건립 칠보문화축제 성료

대한불교 조계종 초례산 칠보사는 노인·여성·청소년 불교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칠보문화제를 성대히 개최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칠보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연극과 춤, 노래, 문예백일장, 강연, 노인전통혼례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공옥진씨의 춤사위와 정다운스님 강연은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칠보바자회, 그림·도자기 전시회, 전통찻집 등 상설행사도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2·제3의 칠보문화축제를 연례화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불교문화공간을 마련하여 불교문화 진흥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행사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님께 감사드립니다.

칠보사 주지 무상 합장
대구 동구 동내동 209 Tel.(053)963-8975

국토 누비며 '역사숨결' 잇기 40년

산문박의 수첩

문화재위원 김정기 박사



감은사 쌍탑 사리함 만지며 '삼국통일 희열 감지'

"문화재 보존은 후손들의 긍지이자 사명입니다"

맑은 오후의 경복궁은 호수에 한가로이 떠 있는 백조와 같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서면 수많은 영욕의 역사가 성큼성큼 다가선다. 그 역사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역사에서 남은 소중한 기억과 자취를 찾는 사람들. 역사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른다. 철학자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쉼없는 고뇌에 빠진다. 시인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 추녀 끝에 매달린 헤진 지푸라기 속에서도 눈물을 본다. 문화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역사를 잇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잇기 위해 기약없는 긴 여행을 떠난다.

사찰 가람배치 연구

곧게 그을린 얼굴, 무엇에 골몰해 있는지 기자가 들어서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마냥 책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김정기 박사(67세). 국립박물관 학예곤을 시작으로 문화재연구실장, 연구소장, 한림대 박물관장을 거쳐 현재 문화재위원이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 상임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김박사의 얼굴빛은 5월 햇살의 짧은 시간 그을림이 아닌 40년 문화재와 함께 살아온 열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난 56년인가 동경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본이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를 대상으로 국가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원으로 참여해 문화재발굴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일본 메이지大와 동경大 재학시절의 전공은 건축공학.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옛사찰 건물의 가람배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보니 절터발굴조사연구가 필수적이었다는 김박사는 문화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설명했다.

김박사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본격 발굴조사를 시작한 때는 1959년 청동사리함 발굴로 유명한 감은사지 西탑 발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각종 문화재 및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해 부여 금강사지, 황룡사, 미륵사지, 천마총 발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한 문화재·유적발굴 횟수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김박사의 대답이 그가 얼마나 우리 문화재 발굴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감은사지 西탑 해체·복원 때였어요. 진눈깨비가 부슬부슬 내려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설레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흙덩어리를 발견했지요.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보니 바로 청동사리함이었어요. 1천3백년동안 고이 간직된 사리함이 내 손에 그것도 내가 제일 먼저 보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기쁨과 희열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성취감과 행복감이었어요."

김박사는 그 순간 신라인이 됐다. 불과 얼마전 감은사지 東탑 해체·발굴에도 참여해 35년만에 또다시 감은사지에 서서 신라인으로 태어났던 사람. 양탑에서 똑같이 청동제 사리함 발굴을 모두 지켜본 이는 김박사가 유일하다. 감은사와 전생에서의 무슨 지중한 인연이라도 있었을까.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에게 사소한 욕심이란 가당찮은 일일 것이다. 돌아갈 집도, 세월이 흐르는 것도 모두 이 강산에 묻고 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 땅의 숨소리뿐일 것이다. 거기엔 선조들의 웃음과 아픔이 있다. 문화재를 캐고 어루만지는 것은 역사를 다듬는 것이다. 그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은 자신이 정열을 바쳐온 이 땅의 두께만큼이나 겹겹이 쌓여 있다.

김박사의 문화재에 대한 지론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한 번 발굴되면 발굴 당시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삼아 보다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의 의미는 단순히 형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숨결과 얼을 되새기는 숭고한 일이라는 것이다. 문화재란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그 숨결 그대로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이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우리답게 지켜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한다.

문화재 훼손은 國恥

"오래전 프랑스 박물관에서 비너스상을 1시간넘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생명력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후 국립박물관에 있는 미륵반가상을 바라보니 은연중 비교가 되더라구요. 비너스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국보급 문화재는 세계 5대 문화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인의식을 잃어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 무한한 긍지를 느낍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듯, 스승이 제자를 바라보듯 김박사의 입가에 화룡점정의 미소가 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김박사는 불끄러미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조금전의 미소와는 달리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친다. "지금까지처럼 여력이 다할 때까지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간단했지만 이 한마디는 바로 김박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고종이 건청궁(乾淸宮)을 경영할 때 지었다는 연못 한가운데 고요히 자리잡은 향원정(香遠亭)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을 배경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흰색 여학생복의 한 무리 속에서 향원정 한 구석을 가로지르며 총총걸음으로 또다른 발굴지로 향하는 김박사의 뒷모습이 한철 수행을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산승의 모습처럼 단아하고 가뿐해 보인다.

한명우 기자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산수가 좋아야 공부 잘되는지요

문 지·수·화·풍 사대로 뭉친 이 육신이 온전해야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도시생활을 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물·땅이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또 시멘트 건물 속에 갇혀 살고 있으니 현대인은 시대가 옛날같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공부가 잘 되겠는지요? 산수 좋고 풍광이 좋은 장소라야 하지 않을까요?

〈최희순·인천 부평구 부평동〉

답 일체 물질세계는 사대가 뭉쳐서 있고 사대가 뭉쳐 있으므로써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우려를 할만도 합니다만 일체는 마음이 근본이고 우주도 인간 마음의 근본과 직결이 되어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공부를 마음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적 현상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에 공해가 걸리적거린대서야 어떻게 공부한다고 하겠습니까? 물질현상도 프로펠라 돌듯이 눈부시게 돌아가는데 이 걱정, 저 걱정 장애꺼리가 많다면 그 또한 어찌 참나찰나에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이 없고 본 사이 없고 들은 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저런 것 꼬치꼬치 따지려하지 말고 닥치는대로 그냥 놓고 가세요. 무엇이 다가와도 겁나지 않고 죽음일지언정 두렵지 않은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많아 불만입니다

문 이제 갓 스물을 넘은 대학생입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한 편이고 겁이 많아서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합니다. 그 점이 늘 불만스러운데 제 자신을 조복받는 일에 대해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태·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답 그걸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소심한 것도 겁이 많은 것도 다 내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되 입력해 버리면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본래는 그게 다 공한 것입니다. 자기가 공했기에 생각이라는 것도 공해버렸지요. 어릴 때는 무서워서 밤에 변소도 못갔지만 커서는 무섭지 않더라고 하듯이 그 무서움증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입력한 것이니 되놓는다면 없는 것이지요.

놓다보니 상대의 아픔이 전해와

문 스님께서 늘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한동안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상대의 아픔을 그대로 직감하게 되었는데 은근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건 또 무슨 업인가, 내게 업이 많아서 상대의 아픔이 내게 전해오는 것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가르침 부탁합니다.

〈조태호·강릉시 옥계면 산개리〉

답 업이라니요? 업이 많다는 것도 실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 공하여 고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에 타의에서 상대성으로 오는 것까지도 말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말겨놓고 쉬우면 쉬운대로 말겨놓아야 참으로 놓는 것이지요. 쉬운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어려워서 안된다고 한다면 아직 놓지를 못한 것이 됩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제 소견에 따라서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지켜볼 뿐입니다.

병든 남편과 동생을 돕고 싶은데

문 남편이 지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중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어찌해야 가족이 모두 건강해지고 다시 화목한 삶을 꾸리게 될른지요?

〈박애자·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답 내가 주인공을 믿고 맡기라는 말을 아마 수천번도 더 했을 겁니다. 주인공이란 네 주인공 내 주인공이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라 우주의 근본 한마음의 부분부분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다시말해 부분이자 전체요 전체와 부분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네 주인공 내 주인공이 따로따로일 수 없고 따라서 내 주인공에 맡긴 것이 그 주인공에 맡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를 형성시켜 끌고 다니는 근본 마음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를 담아가지고 다니는 그릇이 깨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일이요 둘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병을 낫게 해주십시요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타력에 기대는 것이 되어 무효입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나 동생도 이 도리를 믿고 같이 한다면 마치 양쪽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더 밝아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려면 통화중이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천차만별의 능력을 용도에 따라 꺼내 쓰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은 때에따라 약사보살로 화해 돌보아 주기도 하고 관음보살로 화해 응해 주기도 합니다. 한마음 우주의 떡은 전체를 다 먹이고도 조금도 줄어듦이 없이 되남습니다.

누구라도 남들을 위해 한번 던져보시는 마음과 또 체험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법공부가 참 공부이자 몸받고 나왔을 때 한번 해볼 공부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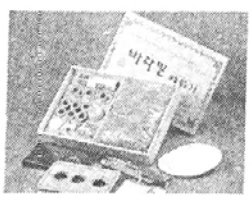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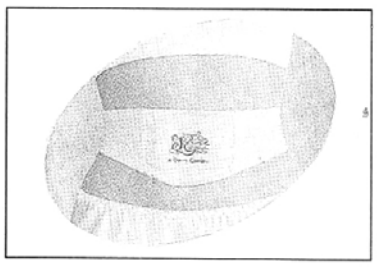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5층)
■대한 불교 조계종 보은 토고친(친정 각장 스님)
■부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전화 (0335)34-9490, 39-1906
이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03
부산지회 (051)516-2713(지정절사)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80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 (0331)291-8549
경남진주신청지회 (055)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052)274-7536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존 게이지씨(왼쪽에서 세번째)와 마이클 카우프만씨(왼쪽에서 두번째)가 종림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함께 해인사 고려대장경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있다.

美 인터넷 전문가

팔만대장경에 감동

게이지·카우프만등 해인사서 전산화지원 약속

해인사(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의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해외 인터넷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지난 5일 해인사를 방문한 존 게이지(美, 썬마이크로시스템 이사), 마이클 카우프만 등 일행은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궁금했다"며 방문 이유를 말하고 "새로운 인터넷 개발 언어 자바를 사용해 전산화 작업을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은 종립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대석스님(사무처장)의 안내를 받아 고려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을 둘러보고 고려대장경 연구소를 방문, 자바를 사용해 인터넷 사용 시범을 선보였다.

해외 학술

"세기말 현상 불교 자비로 극복"

'옴진리' 사건 1년 '대법륜' 5월호 말세사상 조명

옴진리교 독가스 사건 1년을 맞아 일본의 불교종합 월간지 〈대법륜〉은 종말 말법 세기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각계 각층의 주장을 다양하게 들어 화제를 모았다. 〈대법륜〉 5월호는 특집으로 '종말, 말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문인 7명의 의견과 '세기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주제로 각계 각층 30여명의 의견을 모아 현사회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진단,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나고야대학 미야사카(宮坂)명예교수는 '세계종교와 과학'에서 각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해 정의를 내린후 종교와 과학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전후 50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종교의 측면이 배려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무종교인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장례식의 불필요성 내세부정 등을 내세워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며 불교가 극락과 지옥의 사상을 현대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가인 하나와(花輪)씨는 경제의 고도성장후 남은 병폐의 뿌리는 흩어졌고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체제는 마멸되었다고 전제한 후 "경제의 성장으로 엮어진 그물의 코와 같은 관료기구는 이제 모순만 산적해 버렸고 그러한 부조리의 사회속에서 젊은이들은 대의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세기말적 현상을 부처님의 자비로 극복해야 한다는 평론가 간다(神田)씨의 주장도 주목을 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은 항상 인간을 우울하게 하며 인간의 역사에서 완전한 자유의 시대는 없었다고 말하는 간다씨는 "부처님이 생각하는 상식의 자비야말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와 개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와 특성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을 때 세기말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남수미 기자

"사회계도 폭넓혀 위상 강화"

東大 불교문화硏 '다종교사회 불교진로' 세미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표적인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나 가족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지는 등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불교는 종교적 갈등과 종교편향 시비 등 정부·타종교와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위상강화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오는 17일 오후 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다종교 사회에서의 불교의 진로'라는 주제하에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다.



◇김영태교수



◇목정배교수



◇권기종교수



◇현각스님



◇정병조교수

우상숭배·미신·철학등 오해 바로잡아야

종교간 이해·관용토대 상호독립성 인정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는 미리 배포된 기조발제문에서 각기 독특한 진리체계를 갖고 있는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도전을 받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불교의 진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다종교사회는 종교선택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여러가지 주장과 신념의 체계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불교를 미신, 우상숭배, 종교가 아닌 철학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가 같은 통치권 안에서 공존하고 불교가 취해야 할 태도로 첫째, 모든 종교가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과 둘째,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 셋째,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강화를 꼽았다.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본 타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에서 불교는 역사적으로 도교나 유교의 핍박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민족종교로 자리잡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고구려말 수입된 도교는 통일신라 이전이나 이후에도 종교로서의 신앙화된 흔적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불교는 통일 전부터 강하게 표출돼 있는 신라 佛綠國사상이 통일 전성기에는 현실 佛國土신앙의 완성으로까지 전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현각스님(동국대 선학과)은 '정부정책의 종교편향성 시비와 불교의 대응'에서 종교적 갈등과 정부의 종교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교인 스스로가 불교인이라는 깊은 자각과 고급인력 양성, 교단적 차원에서의 교단의 상설 외호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각스님은 현재 불교는 정부, 그리고 일부 광신적 타종교인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불교침해사례를 열거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는 출발부터 자기문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교인 스스로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부언했다.

정병조교수(동국대 중앙도서관장)는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적 불화와 그 해결'이라는 논문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종교갈등은 가정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라고 주장했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갈등을 필연적이나 그 상충가능성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진단한 정교수는 가족간의 종교갈등의 본질적 문제는 가족 구성원간의 각자의 종교에 대한 관념적 태도에서 오는 '대화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종교의례를 공유하고 상대방의 종교를 편견없이 받아들이는 노력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장)는 '종교다원사회에서의 한국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에서 다원(多元)이라는 말은 '불교적 원리는 하나이면서 모두'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초적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언어의 桎에 매어있는 다원적 관용의 의미를 떠나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의 참된 의미를 구현할 때 다원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교수는 또 다원의 세계와 일원의 세계를 떠로 보는 것이 아닌 동시적 상황으로 융섭해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중요시한 원효의 '지범요기'는 남을 절대적으로 비하하는 오늘날에 새로운 반성의 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一元의 참 마음으로 多元의 실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禪, 소비문화 결함 알리는 잣대"

허우성교수 '광고 홍수시대 불교역할' 분석

풍요로운 물질세계를 지향하며 그 한 패턴으로 대표되는 광고홍수시대. 그 현대사회에서 극도의 절제심과 평정을 요구하는 선정(禪定)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불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 불교의 가르침을 펼 수 있을까.



◇허우성교수

허우성교수(경희대)는 지난 4일 열린 한국철학회 9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 '불교의 구원론과 현대:선정(禪定)과 광고'발표를 통해 광고의 성격은 불교의 이념과는 대립되기 때문에 현대소비사회에서의 인간의 정신적 자각이 있기 전까지는 불교의 이념확산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의식적, 무의식적 이미지 고양을 통해 특정 상품을 선택하게 하거나 구매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마음과 의식에 空의 지평을 사물로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즉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양 중생을 속인다는 것과 외면적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상적인 세계 전체를 실재로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선정은 집착에서 벗어나 사물의 실재성을 空으로 인식해 마음의 청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광고는 선정과 함께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광고문화시대에서 선정을 요구하는 불교이념의 사회적 정립은 가능한 것인가. 허교수는 한마디로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계기가 요청될 때까지 불교이념의 사회적 정립은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교의 세속화나 일상성에 대해 근원적인 비판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불교대중화는 역경을 이겨내는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불교의 선정과 심해탈이라는 가치는 하나의 이념으로서, 현대소비문화가 빠질 수 밖에 없는 치명적 결함을 알려줄 하나의 잣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불교학 연구 태도 다변화 필요

정병조교수 종교학회세미나서 '한국불교학…' 강연

해방이후 50년동안의 한국불교의 동향은 어떠했으며, 향후 바람직한 한국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미래사회의 적응방법은 무엇인가.

정병조교수(동국대 도서관장)는 지난 10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춘계세미나에서 '한국에서의 불교연구, 그 현실과 과제-해방이후 반세기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불교연구의 내용과 형식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으나 향후 미래불교의 비전은 불교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정립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증원·해석학 방법도입등 제시

해방이후 한국에서의 불교연구는 뚜렷한 변모를 거쳐왔다는 정교수는 그 첫째시기인 해방이후 60년까지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한 한국불교연구의 재정립기간이었으며,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색을 도외시하고 독창성을 강조한 나머지 객관성을 잃은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불교는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경향을 보이게 되며, 이 시기를 제2의 설명했다.

그러나 불교학연구는 보다 다변화한 연구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정교수는 불교학의 논리적 기반마련을 위한 불교연구인력의 대폭적 증원, 인물에 대한 연구자 집중경향 해소, 불교인들의 독특한 가치세계를 투영할 수 있는 불교해석학의 방법 도입 등의 새로운 불교학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가 가진 내부지향성의 전통을 濫存하면서 새로운 가치질서를 확립할 때만이 미래불교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천년사찰 순천 향림사

12억원 들여 내년 복원

순천시 삼산동 향림사(도 문화재자료 3호)가 복원된다.

시와 향림사 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경내에서 복원공사 착공식을 갖고 내년까지 12억원을 들여 1백12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 삼성각, 심검당, 명부전을 복원하고 담장보수 및 조경 등 대대적인 주변정화사업 등 천년 전통사찰 본래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작업에 착수했다.

향림사는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심의 천년고찰로 지난 94년 화재로 전소됐다.

속초 향성사지3층탑 보수

붕괴위험이 높은 속초 향성사지 3층석탑이 해체·복원공사에 들어간다.

속초시는 지난 66년 보물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인 향성사지 3층석탑이 최근 지반이 침하되면서 탑 기단부가 내려앉아 붕괴위험이 높다고 보고 연내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탑의 해체·복원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btn캠페인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시다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buddhist television network

윤회는 '시간·존재' 본질 푸는 방편

보르헤스의 ⑮ 불교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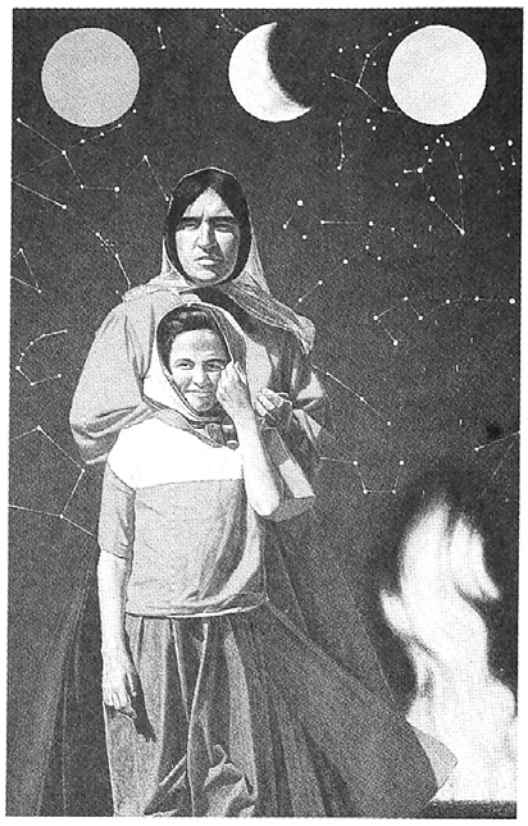
윤 회 ⑤

윤회라는 주제는 한편 인도인들의 시간관(時間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보르헤스도 윤회를 시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이 찾아낸 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죽음'이며, 죽음은 인간에게 '시간'의 문제로 다가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한 철학자가 평생을 바쳐 각고의 사색과 연구 끝에 철학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학설을 정립했다 하더라도, 시간의 근본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보르헤스는 말하기를 많은 작가들이 생(生)이라는 수수께끼를 마주해 그것을 풀기 위하여 노력하면 결국 시간이란 문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모든 정신적 체험은 시간체험으로 환원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로 볼 수 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永遠)도 그 해결책 중의 하나이다. 종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문제를 풀기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의 해결책도 재미있다. 그는 시간의 문제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인 영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데아론(論)에 따라 먼저 영원한 존재를 상정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는 타존재들에게 자신을 투영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 속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타존재들은 하나씩 하나씩 연속적으로 투영되는 사물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 속에선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의 움직이는 영상이라 불렀다.



◇ 보르헤스는 인간에게 있어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중의 하나인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윤회사상이 등장했다고 보았다. 사진은 이종구씨의 실크로드 기행작 '영원의 빛-쉬타즈 유목민'.

'바로 지금' 인식 삼세로 통해…미래확신 현재에 반영

시간은 幻에 불과…禪은 시공 넘나드는 정신체험

인간과 세계의 근본을 생각하고 인식하는 학문을 흔히 형이상학(形以上學)이라고 한다. 베르그송이 형이상학의 핵심문제는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더 나아가 시간인식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체험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인간이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일상(日常)에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금 여기'를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가. '오늘'은 '오!-늘(常)'인 것이다. 그 경험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성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시간은 순환하는 圓形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내 이름이 갑돌이인지 새삼 되돌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모든 것은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와 진다. 흐르고 흘러도 또 새로운, 변하고 또 변해도 그대로인 시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참선이란 어쩌면 시간을 거스르는 방법이며 선(禪)이란 시간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문명(文明)의 기본구조는 시간이란 불가사의한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윤회도 넓게 보아 시간이 제기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암 블레이크는 "시간은 영원의 선물이다"고 했다. 만일 인간이 시간을 초월한 신이나 혹은 전 존재(全存在)를 딱 한번에 다 파악해야 한다면 압도당해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대신 영원은 관대하게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겪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따라서 시간은 영원이 인간에게 선사한 선물이 되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시간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닥친 사람이다. 그는 고백록 제11권에서 그의 영혼이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몸부림친다고 했다. 그는 신의 날은 나날이 아니라 '오늘'뿐이라고 하면서 영원으로 통하는 시간인 현재를 강조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지만 모두 정확하게 각자의 '바로 지금'에서만 일어난다고 하였다.

시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색 중 특이한 것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대신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들어 오는 시간을 발견한 점이다. 인간이 미래의 어느 시간을 의식하고 그것에 기초한 소망스런 미래상(未來像)을 그려낸다면, 그때부터 그 미래상은 현재를 의욕적이고 건설적인 창조의 시간으로 바꾼다는 점을 그는 지적했다. 미래의 성취에 대한 강한 확신은 커다란 인력(引力)이 되어 현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고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 속에 매몰되어 버린 화석(化石)같은 과거도 미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쏘이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고난은 찬란한 미래를 위한 시금석(試金石)으로 변하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사색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고난의 오늘을 극복하는 힘을 주기도 한다. 또한 시간관(時間觀)은 문명이나 시대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인들처럼 그리스인들도 윤회를 믿었다. 다시 말하면, 인도인들처럼 그리스인들도 시간을 원형(圓形)으로 본 것이다. 시간은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독교는 시간을 직선으로 본다. 시간은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일회적(一回的)이고 직선적이며 유한(有限)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유한한 시간의 밖에 무한한 시간인 영원을 상정함으로써 유한한 시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기독교 시간관 '일회성'

'현대(現代)'라는 이 시대의 이름은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시간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대'라는 말은 영어 모던(modern)의 번역어이다. 모던의 원래의 뜻은 '새로운'이었으며 영어의 뉴(new)와 동의어였다. 현대인인 우리들은 왜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을까? 바로 우리의 시간관이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새로운 것은 곧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진보(進步), 선진(先進), 첨단(尖端), 진화(進化), 혁명(革命) 등의 직선논리가 각광을 받고 사회에 난무하고 있다.

과거엔 부끄러움이었던 불초(不肖, 아버지를 닮지 않음)가 새로움에 대한 숭배로 인해 미덕으로 대접받는 시대를 살며 맹목적으로 앞을 향해 질주하는 인간 군생들-현대인들에게 보르헤스는 불교를 인용하여 시간이란 환(幻)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안 원 영 〈서울대 교수 · 원산종〉 〈下〉



교수인 나는 새내기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새학기면 큰 책임감을 느낀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우선 대학등록금을 자기손으로 마련한 학생을 조사하고 젊은이가 젊은이를 지도하는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 개천에 빠지기 쉽듯이 잘못되기 쉬우니 궁금한 일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대학원 선배, 조교 그리고 선생님께 의논하라고 권한다.

"집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말을 해주고, 천년전 고려시대 야운(野雲)스님의 〈자경문〉 한구절을 가르쳐 준다.

'그대가 길을 잘못 들까 염려하여 내 좁은 소견으로 열가지 문을 마련하여 경책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 말을 믿고 하나도 어기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노라'로 시작하여 네번째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삿된 벗은 멀리 하라'에 훌륭한 친구를 귀히 여기라는 대목에서 '낙락장송 큰 소나무를 타고 오르는 칡은 천길을 곧게 올라가지만 억새풀밭의 칡은 기껏 올라가야 석자를 넘지 못하나니, 어질지 못한 소인들을 언제나 멀리 떨어져 피하고 뜻이 높고 고상한 사람들과는 항상 가까이 친해야 하느니라.'

지난 해 3월 시름시름 병이 깊어 영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수술받기 직전에 아예 인쇄하여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죽거든 화장하여 선영에 평장하라는 것과 여러 당부의 말을 일러둔 것이다. 그런데 발달된 현대 의학술의 덕으로 심장수술을 받고 살아났다. 내가 입원해 있던 층에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방이 있고 장기기증을 다루는 상담실이 있었다. 이 방문 앞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생각난다.

당신 몸의 모든 기관을 극락으로 가져오지 마라.
극락에서는 그것이 사바세상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생각해 보면 나는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배고픈데 남 먼저 밥주어 먹게 한 적 없고, 내돈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희사한 적도 없다. 그러고는 나도 가난하게 사는데 하며 항상 자신을 합리화시켜 왔다. 그런데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심장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다음 사람을 위하여 연구자료가 된다면 이 심장을 떼어가시오 했고 60년을 끌고 온 몸인데 성한 곳, 쓸만한 곳이 남아 있을까 생각하였다. 불교계를 비롯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간다고 한다. 내가 이것저것 다 떼어주고 저승에 가 윤회의 길에 들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 온전한 몸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실까!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해인사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법고소리다.

16년전인가 맑게 개인 가을 어느날 해인사 경내 한 방에서 나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법고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법고루 앞으로 가 섰다. 젊은 스님 두 분이 한조가 되어 번갈아 가며 북을 친다. 그야말로 쾅쾅 울리는데 묘한 리듬과 장단의 조화가 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드디어 마음을 치더니 그야말로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해준다. 나는 법고소리가 이렇게 좋은 지는 처음 알았다. 이후 나는 법고치는 곳에는 꽤 쫓아다녀 여러 절의 여러 법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날같은 법고소리는 없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법고는 양편에 가죽을 씌운 북이다. 이 가죽은 습기에 민감하여 공기중에 습기가 많으면 가죽이 흡수하여 축 늘어나니 두드리면 퍽퍽 소리뿐 힘이 있을 리가 없다. 하루 중에도 밤에는 법고의 쇠가죽이 흡습하여 늘어나고, 맑게 개어 빨래가 잘 마르는 그런 건조한 날에는 가죽의 수분이 빠져 팽팽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 그 법고치는 소리가 광광 우렁차게 울리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울린것이 아닐까.

올 가을 청명한 날 골라 해인사에 가서 그 법고 소리를 들으며 속진이나 떨구어야 겠다.

"착한 벗 가까이" 새내기들에 당부

사후 장기기증으로 인색했던 삶 사죄



봉 축

북한산 (삼각산) 노적사 오백나한 봉안

북한산(三角山) 적멸보궁

북한산『노적사』 도량 경내지에 오백나한을 모십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제자 중에 아라한 과를 증득한 오백성중을 말합니다.
서울의 두상과 같은 삼각산 적멸보궁의 멍기어린 노적봉 산세는 『**원효대사님**』과 『**의상대사님**』께서 중성문을 두고 國運의 융성을 기도했던 기도처로 유명한 곳 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노적사**』에서는 오백나한의 봉안불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녕과 불국정토를 앞 당기는 큰 발원을 세우고자 하오니, 청정한 신심으로 성스러운 불사에 무루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고 큰 공덕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0년 5월

주지 석종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문의전화 : (02)353-5016, 353-4924,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9〉

諸賢頌句
(제 현 송 구) ⑥

宏智禪師示衆
굉지선사시중

高里新墳盡少年 修行莫待鬢毛班
호리신분진소년 수행막대빈모반

호리마을의 새 무덤이 모두 소년무덤이니 수행하는데 저승꽃 피기를 기다리지 말고

死生事大宜須覺 地獄時長豈等閑
사생사대의수각 지옥시장기등한
道業未成何所賴
도업미성하소뢰

생사관문이 크니 마땅히 깨달으라 지옥의 시간은 긴 것이니 어찌 등한히 하랴
도업을 이루지 못하면 무엇에 의지하리오

人身一失幾時還
인신일실기시환
前程黑暗路頭艱 十二時中自看奸
전정흑암로두험 십이시중자간간

사람몸 한번 잃으면 어느때 돌아올까
앞길이 캄캄하고 길머리가 험하다 하루 종일 쉬지않고 자신을 살펴 구할지어다

부시일번한철골 쟁득매화박비향

한번 한기가 뼈에 사무치지 아니하면 어찌 매화의 코를 찌르는 향기를 맡으랴(뼈에 사무치도록 관하여 한번 뚫지 못하면 봄 내음에 매화향기 가득한 줄을 어찌 알겠느냐)

戒互用之罪
(계 호 용 지 죄) ①

雲盖智禪師 一夕雨霽 寒月 微映
운개지선사 일석우제 한월 미영
宴坐方丈 將及二鼓
연좌방장 장급이고

운개지선사가 어느날 저녁 비가 그쳐 밝은 달이 은은히 비칠적에
편안히 방장에 앉아(참선하는데) 북이 두번 울리려 할 즈음에(밤9시~11시 사이)

忽聞炮灸之臭 俄有枷鎖之聲
홀문포구지취 아유가쇄지성
開戶視之 貌不常類
개호시지 모불상류

문득 무엇인가 불에 지지고 굽는 냄새가 나고 칼쓰우고 사슬 채우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문을 열고 내다보니 몰골이 보통것이 아닌게

"사람몸 한번 잃으면 언제 돌아올까
앞길 험하니 쉬지말고 자기 살펴라"

傳法偈
전법게

假使頂戴經塵劫 身爲床座遍三千
가사정대경진겁 신위상좌편삼천
若不傳法度衆生 畢竟無能報恩者
약부전법도중생 필경무능보은자

가령 경을 머리에 이고 수억겁이 지나고 몸이 평상이되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해도(몸이 삼천대천세계를 내집 드나들듯 하여도) 만약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끝내 이 은혜를 갚을자 능히 없으리라.

黃蘗禪師偈
황벽선사게

塵勞未脫事非常 緊把繩頭做一場
진로미탈사비상 긴파승두주일량

속세의 일에 마음이 묶여 번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보통일이 아니다 긴급히 승두(화두·불법의 이치)를 잡아 한마당을 지을지어다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荷枷帶索 枷上 火起而復滅
하가대삭 가상 화기이부멸
立方丈之前 以枷尾
입방장지전 이가미

목에 칼을쓰고 꽁꽁묶였는데 칼위에 선 불길이 솟았다 잦았다 한채로
방장실 앞에서서 칼끝으로

倚於門閫
의어문곤
謂曰汝是誰耶 曷苦如此
지왈여시수야 갈고여차
枷下人 曰我
가하인 왈아

문지방에 버티고 서 있거늘
지선사 가로되 너는 누구이관대 어찌하여 고통이 그리 심한가하였다. 칼쓴이 이르되 저는

前主當山守顧也
전주당산수옹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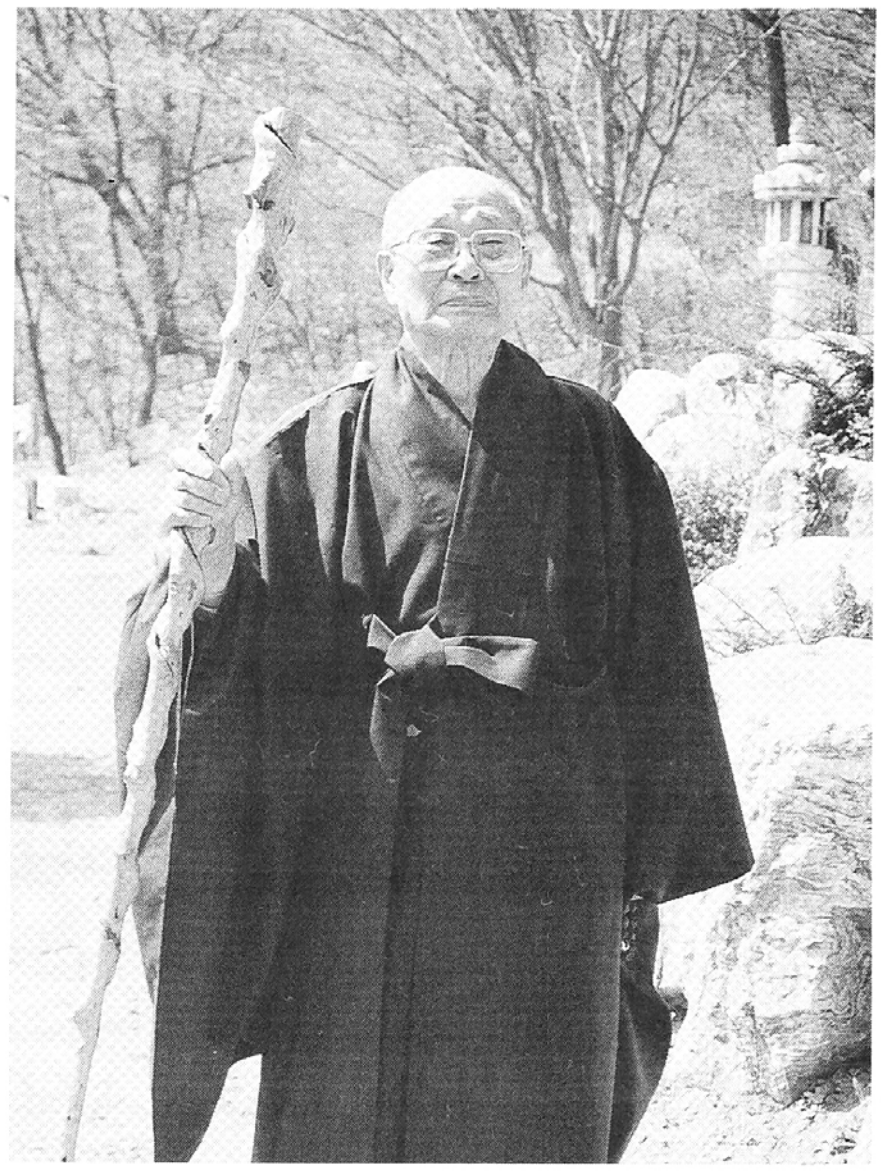
전에 이절(이산) 주지였던 수옹입니다.

龍眼

★ 지 상 법 석

좋은 말 웃는 얼굴 바른 생각

보성스님 〈태고종 종정〉



약 력
- 1906년 生
- 19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황경당 스님을 은사로 득도
- 31년 중앙 불교 전문학교 졸업
- 일본대학 종교과 사학과 졸업
- 61년 동국대 총장
- 75년 태고종 종회의장
- 79년 태고종 제12세 종정취임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암과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삼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오신날을 일심으로 봉축하는 것은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땅한 도리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가 중생이라는 사실 마저도 부처님의 지혜법문이 있어 알게 된 것이니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이 없었다면 캄캄한 암흑 속을 헤메이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중생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생도 브처인 겁니다. 다만 부처의 성품으로 충만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을 함께 갖추고 있어 더러는 중생이고 더러는 부처가 되는, 말하자면 덜 익은 부처가 중생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믄제 입니다. 부처인 것이 확실하되 중생의 성품이 구름처럼 들어찬 것이 중생인 겁니다. 이 마음속의 중생성품을 비워내고 부처성품을 채우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길,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생의 목숨을 버려서도 오르기 힘든

"우리는 중생성품이
구름처럼 가득찬
부처입니다
부처 드러내려면
쉼없는 수행있어야죠"

자리입니다. 훌륭한 게송 한구절을 듣기 위해 목숨마저 기꺼이 던진 선혜의 얘기를 비롯한 〈본생담〉의 이야기들이 암시하듯 수없는 생을 거듭거듭 정진 수행해야 오를 수 있는 지난의 자리가 성불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서둘것도 욕심낼 것도 아닌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다고 한순간도 게으를 수 없는 것이 또한 수행입니다. 몇겁생을 두고 닦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주 앉아 말을 하고 듣는 것이니 이 순간도 중한 수행의 한 바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찬 중생심을 버리는 일이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일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인데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 한발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겠지요. 깨달음의 그 자리는 이르는 시간을 둔 곳도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르고 보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저 여여한 자리라고 옛조사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둘것도 욕심낼 것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이 있다 했으니 그 예를 들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놀던 어린 아이가 발을 잘못 디뎌 우물에 빠지려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달려 갈 것입니다. 아이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 아이의 옷자락을 움켜 잡을 것입니다. 그 일촉촉발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 구해주면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야 하겠지요. 오직 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은 부처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1초간의 부처가 된 것이지요. 1초간의 부처를 이룬 사람이 그 1초를 1초에서 잃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다면 그대로 부처가 될 것인데 금방 중생심으로 돌아가 버리 거든요. 1초간 자신이 부처의 성품이었다는 사실 조차 모르기 일쑤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처의 자리와 중생의 자리를 그렇게 오가는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성품을 오래 지니기 위한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3초간의 부처를 30초로 늘리고 30초의 부처를 3분의 부처로 늘리고 한 시간의 부처가 되고 하루의 부처가 되고 한달 한해 10년의 부처가 되는 길이 수행을 통해 열린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생에서 다 이루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한 생에서 다 이루었다면 그 역시 과거세의 기나긴 수행이 있었던 결실이겠지요. 아무튼 이루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임(保任)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중요성이 그 이치입니다. 더러 한 소식을 들었다고 자부하는 수행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입을 열어 부처의 자리에 이르렀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중생심을 드러내 보였으니 어찌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젊었을때의 얘긴데, 상주 근처 어느 선방에서 대각을 이룬 선사가 있다는 소문이 났던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선승은 횃불이 없이도 어두운 산을 휙휙 다니고 자는 것 먹는 것 가리지 않고 무애행을 하

현장스님의 염불선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



玄藏 스님은
1975년 송광사에서 九山禪師를 은사로 득도하여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보성 대원사에 수련도량을 개설 일반인과 재가불자를 위한 주말수련회를 지도하고 있다.

「염불공부는 바로 참자기(眞我)를 찾는 가장 순수한 참선 입니다.」
〈정화큰스님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많고 많은 죄업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모든 원인 또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 난다고 합니다.
염불은 내가 나를 불러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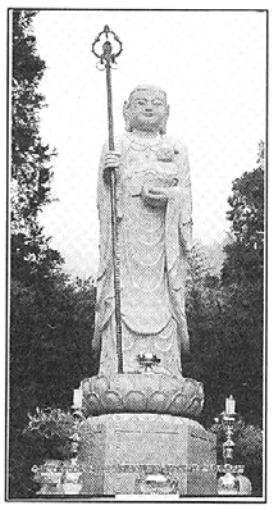
〈저자 서문 중에서〉

◀현장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02)732-2403 ◀값 5500원

태아령 (胎兒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 (죄업소멸 복덕증장) 봉행

떠도는 어린넋들을 위하여



대원사에 봉안된 태안지장보살

태안지장(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낙태유산아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셋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셋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 부터 벗어나며
세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함입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원하고자 서원한 지장보살님과 자비의 빛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에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 공덕의 삶 누리길 기원 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 『태아령 천도공양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정토수행법』
③ 백일기도 자료집 『부처님께 가는 길』
④ 사경과 사물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기도용 『태안지장보살사진』을 우송해 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5월 31일 (입재)~8월 28일 (회향)
◆동참회비 : 기도비 (5만원), 영가위패 1인당 (5천원)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연 락 처 : 우)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화 : (0694) 52-1755, 53-1755
· 팩스 : (0694) 53-0009

천봉산 대원사

주지 玄藏 합장

지상법석

성불 자리로 가는 '여로'

"물에 빠진 아이 구하러 달리는 마음 계정혜 삼학으로 승화시키면 누구나 중생심 녹일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극락…생활속에서 늘 실천하길

1초씩 1분씩 부처마음 늘려가면 청정자성 보여

"내 얼굴이 기쁘고 즐거우면 남도 좋게 봅니다 내 마음의 부처 드러내 남의 마음속 부처 일깨웁시다"

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후 아주 초라한 선객으로 주저 앉고 말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결국은 허깨비의 놀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선객은 애시당초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채 이른 것처럼 허상에 얽매였거나 정말 오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그 자리를 보임하지 못하고 마음을 흐트려서 다시 선객의 초라한 좌복위로 떨어진 것일 겁니다. 우스게 소리지만 신라의 원효 이후 원효를 흉내 내는 원효는 많아도 원효를 이룬 원효는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진정한 정각의 자리는 여여한 것이어서 말로 표현되는 것도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이른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 역시 허망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 묵묵히 부처의 성품을 키워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연꽃을 들어 보이신 부처님과 빙그레 웃음만 지어 보인 가섭의 이심전심을 선방수좌들의 화두로 삼는 것도 그런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는 심정을 잃지 말고 정진해 나가자는 것인데 정진의 궁극은 계(戒) 정(定) 혜(慧) 삼학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삼학은 수행과 구경열반을 아우르는 도리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성을 향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하는 열린 틀입니다. 정이란 그 열린 틀 속에서 그야말로 청정무구한 자성 즉, 부처의 성품을 보는데 필요한 닦음의 과정입니다. 그 닦음을 통해 부처성품을 보는 지혜의 몸을 갖추는 것이 혜입니다. 이 세가지는 따로따로 이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자리에서 같이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이 하나 있고 그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에는 달이 비치고 있고요. 이것이 삼학입니다. 그릇이 이그러지면 물도 이그러지고 물이 이그러 지면 비친 달도 이그러 집니다. 또 그릇은 온전한데 물이 일렁이면 그 안에 비친 달도 일렁 입니다. 반듯한 그릇에 흔들림 없이 맑은 물, 그리고 그 속에 온전히 비치어 빛을 발하는 달. 이것이 삼학이니 여러분의 그릇은 얼마나 반듯한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 속의 물과 거기 비친 여러분의 달은 어떤 모양인지 잘 살펴 보시란 겁니다.

물에 빠진 아이 구하는 마음을 계정혜 삼학으로 승화시켜 그치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바로 성불의 길인데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까 얘기 한대로 조금씩 부처의 성품을 늘려 가는 일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 삼학이 닦여 지는 것이니 그리 어렵게 여기고 겁낼 일은 아닙니다. 자주자주 1분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부처를 이루는 방법은 염불이어도 좋고 참선이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방편을 택하던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성건성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에서 피가나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극진히 염불주력을 하는 가운데 중생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선도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며 매몰차게 하다보면 청정한 소식이 올 것입니다. 참선을 하되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은 자칫 혼자 공부하다가 잘못된 자리에 이르러 '나는 깨쳤다'라고 오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본 사람이 길을 잘 안내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편 말고도 재가불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방편은 너무나 많습니다. 승속에 수행의 방법이 다를 수야 없겠지만 요즘 같이 복잡한 시대에 세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 행하는 것이 불자의 바른 자세 일 것입니다. 세간의 불자가 삶 속에서 해야할 수행. 그것은 다름아닌 공덕 베풀기 입니다. 거듭 얘기 하지만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달려가는 그 공덕을 쌓지는 겁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큰 수행인 겁니다. 마음을 본다고 '이뭣꼬' 화두만 참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겁니다. 베푸는 마음 속에 부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처를 오래오래 자기화 시키는 것이 염불 참선으로 성불 하는 것과 다를 수는 없습니다. 부처에 이르고 보면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듯이 말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합니다. 베푸는 마음 속에 부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옥이고 이 자리가 극락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만나겠습니까. 중생의 마음은 지옥이고 부처의 마음이 극락인데 부처의 마음을 키워 가는 자비희사의 보살행을 게을리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경전에 기록된, 법당에 모셔진 지장보살 관음보살에 얽매이지 달고 스스로가 현세의 지장이 되고 관음이 되길 서원하고 그 원행을 실천 하라는 것입니다. 내생에 극락에 나길 기원하는 것 보다야 현세에서 보살도를 실행해 보살의 공덕을 쌓는 것이 더 큰 성불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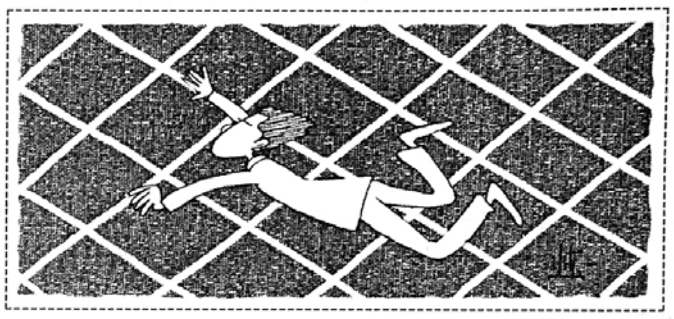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하라

자정기의(自靜基意)하면 시제불교(是諸佛敎)라는 칠불통게의 가르침이 그대로 선한 공덕으로 마음 닦아 부처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 우리의 마음에 부처와 중생이 함께 있다면 항상 밝게 살아야 합니다. 즐겁고 밝은 마음이 부처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기쁘고 즐거우면 남도 좋게 봅니다. 저 거룩하고 자애로운 부처님 모습에서 고달픈 중생의 시름이 봄눈 같이 녹듯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드러내 남의 마음속 부처를 일깨우는 일도 큰 보시행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표정이 어둡거든요. 사람들의 표정이 흐리면 그 세상도 흐린 것이고 그 흐린 곳은 지옥에 가까운 곳입니다. 나 한사람이 밝은 모습을 지으면 내가 선 자리가 극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역시 수행이요 성불로 가는 길임을 의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웃는 사이만큼의 부처 성품이 밝은 등불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는데 왜 서로 으르렁 거리며 굳은 표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베푸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좋은 말 좋은 표정 좋은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며 함께 부처가 될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되는 여로에서 일탈된 행위로 지옥의 땅을 넓혀 버리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분 부처가 되고 자만하지 말고 내일 2분 부처가 되도록 노력 하는 사이에 자성의 청정한 모습이 보여 질 것이니 베풀고 정진하며 나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중고식멸처(衆苦息滅處)
별유일건곤(別有一乾坤)
차문시하처(且問是何處)
배욕공심문(背欲空心門)
중생 고통 영원히 멸한 곳
천지를 떠난 오직 한 군데
그곳이 어디냐고 묻는가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운곳이 거기.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⑦⓪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⑦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리적 진공, 복잡한 그물망으로 연결

눈으로 보는 색계 절단된 단면에 불과

물리적 진공에 에너지를 주었을 때 입자-반입자의 쌍이 생성되는 쌍생성,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신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쌍소멸의 현상만으로도 반야심경이 표현한 공불이색 색불이공은 더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잘된 표현이지만 쌍생성과 쌍소멸은 물리적 진공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상중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진공은 기술(記述)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상태에 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몇가지 종류의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소립자마다 짝이 되는 반입자가 있는데 입자-반입자가 결합하여 서로서로 끊임없는 상속작용을 하면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물리적 진공이다. 이 그물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창조와 소멸을 되풀이 하고있다. 끝없이 쌍생성과 쌍소멸도 일어난다. 그뿐 아니라 갖가지 종류의 입자와 반입자가 제멋대로 생겨났다가 제멋대로 사라지는데 단지 인간에게 관측되지 않고 그물망 속에서 일어났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 그물망은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끊어진데도 없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물망으로 서로 연결된 것은 인간이 볼 수 없다. 강한 에너지를 주면 이 그물망의 한 곳을 절단할 수 있는데 절단면이 바로 우리가 보는 물질계를 이루는 입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철사줄로 된 그물망을 예로 들겠다. 철사망의 한곳을 잘라 철사를 구부리면 두개의 면이 나타난다. 한쪽면이 입자이고 다른 면이 반입자다. 실제의 그물망은 두곳을 잘라 철사조각 하나를 완전히 그물망에서 들어낼 수 있지만 진공의 그물망에서는 철사조각 하나를 완전히 들어낼 수가 없다. 철사조각 하나를 들어냈다고 가정하더라도 철사조각 중간부분이 다시 다른 철사줄로 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가상입자(假想粒子, Virtual Partid)라 부르고 우리가 보는 물질계 즉 색계(色界)를 이루는 입자를 그냥 입자라 부를뿐 가상입자나 실제입자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색계를 이루는 입자도 다른 입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입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색계의 입자 모두는 다시 철사줄에 비유한 가상입자를 통해 진공의 그물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실제의 입자는 단지 잘라진 철사줄의 절단면에 불과하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상입자는 철사줄이다.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이와같은 그물망으로 물리현상을 다루며 계산하고 있다. 그러니 색계라고 해서 진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그물망의 여러곳을 절단하여 철사를 구부려 그면이 보이게 했을 때 보이는 절단면에 불과하다. 중요하기에 한번 더 강조하지만 색계를 절단면으로 보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실제 문제를 풀고 계산하는 방법이요 모델이다.

그물망과 절단면은 자연에 대한 실제 모델이니 즉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의 입자가 절단면에 불과하다면 연결되지 않고 존재하는 절단면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물망의 모델대로 입자는 가상입자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입자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 즉 색계는 다시 진공과 가상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실제로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실험적으로 측정한 것은 대략 50년전 쯤의 일이다. 이것을 최초로 계산한 사람은 램(Lamb)인데 색계와 진공과의 상호작용에 관해 램이 발견한 효과를 램-이동(Lamb Shift)이라 부른다.

색계가 단순히 그물망의 절단면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을 색불이공이라 불러야 할까? 공불이색이라 불러야 할까? 이 두마디의 말은 어딘가 부족한데가 있다. 그대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냥 진공에나 있는 하나의 절단된 자국에 불과하다. 그러니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일 수 밖에….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물망의 모델을 표현할 말을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떠나 달리 찾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반야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2천만에 깨달음을

부처님의 법음을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칠보로 세상을 장식하는 것보다
한자락 법보시가 참 공덕이 됩니다.

현 대 불 교 신 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 표 02-737-8881
· 광 고 국 02-737-0692
· 팩 스 02-737-0697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목포 · 전화 0631-281-2534
공주 · 전화 0416-55-0020
사천 · 전화 0593-32-5160
청주 · 전화 0431-53-4330
여주 · 전화 0337-84-0797
속초 · 전화 0392-31-0543
강릉 · 전화 0391-647-931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9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교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5월 1일 ~ 5월 27일
■ 개강일시 : 1996년 5월 27일 오후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3층
전화 : 741 - 0495 ~ 6

海 東 佛 敎 大 學
儀 式 敎 育 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六庚申道通 제2회 법회안내

금년 丙子年 六庚申道通 제2회 기도법회가 양력 5월22일(음 4월 초6일 해시)에 입제하여 5월23(음 초 7일) 밤 해시에 회향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여 큰 뜻 이루시기 바라옵니다.

하늘이 인재를 만들려면 어려운 역경과 고행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만이 도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한 자리인 만큼은 말문과 문자와 아상과 학문을 초월한 자리인 고로 하늘 땅이 그 소임을 맡기려면 근본심지를 시험하는 것이 근본진리 이거늘 그 고비를 넘기는 기도가 육경신 기도이며 이 기도의 수행을 통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이통, 누진통, 신족통, 숙명통을 성취하여 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용맹정진수행인 육경신도통수행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고양이뿔로 달속에 있는 토끼뿔을 잡는 거와 같거늘 무엇을 말하랴마는 대도의 근본인 도통을 할려면 매사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시방법계가 장애아닌 것이 없으며 그 장애를 이기는 정진기도가 바로 육경신 기도로써 본인 자신들에 덕망을 쌓아온 기근에 맞게 도통문에 들어가 무불통을 하시어 신선의 경지에 들어가 덕망 높은 선지식들을 익히어 도인에 길을 걷는 도학들에게 많은 지도를 하시어 도인세계의 저변확대는 물론 무질서한 도통인들의 밝은 세계를 이루워 남북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와 2000년대의 범태평양시대에 모범된 질서속에서 도덕성회복은 물론 앞서는 도인상을 심어 줍시다.

◇입제일:1996년 5월22일(음 4월 초엿세 6일) 밤 10시
◇해제일:1996년 5월23일(음 4월 초이레 7일) 밤 해시
◇회 비:5만원
◇온라인:농협 029-01-167866 국민은행 039-21-0511-461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 02-821-6622 · 야간 923-3110

육경신도통회 약사선원장 태일거일거사 합장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 진

"내생에 가지고 가나 금생에 끝장내나…
그 차이야 터럭 끝 아니겠어"
인담이 평소의 그답지 않게
허물없는 대꾸로 우녀를 눌렀다



77

두 사람은 오전내내 서로 다른 벽에 대고 앉아 있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머리로부터 뱃구리의 단전(丹田)으로 내려와 있어서 마음의 상태는 항상 평안하였다.

지난 시절 인담은 화두를 잘못 들은 나머지 상기(上氣)가 되어 도무지 잠을 잘 시간에 잠을 이를 수 없었는데 그런 때는 환각 속에서 쥐가 몇백마리가 발 밑으로 달려가는 일 때문에 놀란 적도 있었다.

그런 상기로 화두 꽃이 피면 머리통에 붉은 빛의 부스럼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화두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하거니와 그 때의 인담은 우선 그런 머리통을 찬물에 처박아 푹 담그는 것으로 물맞기 치료를 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때까지의 화두 대신 물맞는 관(觀)을 하기 시작하였다. 눈을 지긋이 감고 머리 정수리에 폭포를 맞는 관이었다.

과연 그런 관(觀) 속의 박연폭포를 맞고 나면 한결 머리에 오른 상기가 내려가고 있었다.

"박연폭포!"

그가 꿈속의 스승 달인의 인도(引導)로 일춘의 문집을 찾기 위하여 산중의 암굴을 다녀오는 길인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뜻밖의 박연폭포에 이르는 길로 접어 들었던 것이다.

그때 한낮의 햇빛이 퍼붓는데 그 햇빛이 이스라히 폭포 위로부터 폭포에 빨려들어 숫제 눈을 뜰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가슴 속의 박동도 맞은 듯이 폭포가 내는 굉음과 폭포가 떨어져 수많은 포말로 튕겨오르는 장관에 어이할 바를 몰랐다.

이미 여름 한낮이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 어느덧 그런 땀이 쑥 들어가 버리고 몸은 송장인양 식어버렸던 것이다.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런 생각의 꼬투리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때 그는 무(無)란 단순히 허무가 아니라 커다란 공간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거의 뜬눈으로 보내고 배가 고픈 줄도 모르면서 비틀걸음으로 떠났다. 정작 새벽녘부터 귀가 멍멍해지면서 폭포의 굉음이 들리지 않더니 그곳으로부터 한나절이 다 걸려서 당도한 삼거리 주막 언저리에 이르러서야 그때까지 귀신처럼 따라붙었던 폭포의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바구 걸음을 빨리하였다.

아무튼 인담으로서는 이런 화두로 인한 상기와 그 상기를 이겨내기 위한 폭포관(瀑布觀)으로 어느 만큼 상기를 달랠 수 있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다.

이제야 그런 과정을 거친 인담에게 이이없게 상기가 찾아올 까닭이 없다. 인담과 함께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방선 뒤 우녀가 다리를 풀면서 한마디 남겼다.

"이 노릇을 내생에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다니… 금생에 끝장낼 일을 가지고…"

"내생에 가지고 가나 금생에 끝장내나… 그 차이야 터럭 끝 아니겠어?"라고 인담이 평소의 그답지 않게 우녀를 눌렀다.

언제나 우녀를 섬기는 것으로 살아온 인담으로서는 뜻밖의 허물 없는 한 마디 대구(對句)였다. 우녀도 그 맑은 눈빛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야 우리는 일심동체(一心同體)인가 보아요."

"…"

"인담스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높낮이도 없고 아무런 깊고 얕음도 없으니"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엉겨붙어 그들 사이의 거리는 실로 찬란한 정신의 잔치였다. 잔치라면 시끌벅적해야 하겠지만 이렇듯이 적요 그 자체의 눈빛만으로써도 더 없는 귀머거리 잔치일 줄이야.

이제 그들은 형상이 없어도 좋았다. 육신이 없어져도 좋았다. 일체의 욕계(欲界)가 갖추어야 할 것을 한갓 매미나 뱀의 허물처럼 가을의 잔 바람결에도 실없이 뒤척이다가 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현세에 있다. 두 사람도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들의 몸에 정(精)을 지니고 있다.

정은 기(氣)에 속한다. 굳이 이런 정을 등유(燈油)라고 하면 기는 심지이다. 그 기름과 심지로 밝혀지는 불빛은 신(神)이다.

그러므로 기·정·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신을 이루는 핵심이다. 사람이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진다. 열이 오른다. 이렇게 기가 오르면 정이 상승되고 이어서 피가 위로 치솟아서 상기를 이루는 것이다.

공부하다가 상기가 되면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다. 참선은 더 그렇다. 그래서 상승된 화기(火氣)를 아래에 있는 수기(水氣)를 끌어올려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물맞이이고 그것이 폭포를 관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우녀야말로 항상 단전이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 가슴 위로 더운 기가 올라갈 턱이 없었다.

구름이 가는 구나
이어서 달이 가는구나

어느덧 두사람의 수행은 자연스럽게 연단(煉丹)을 익혀서 배꼽 아래 단전에 화두이든 화두가 아닌 묵조(默照)의 공(空)이든 거기에 두고 있으면 되었다.

어디 좌선일 뿐인가.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다 단전으로부터 있을 만하였다. 정은 기를 따르고 기는 신을 따라서 단전의 기해혈(氣海穴)에 담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따위 외단 내단(外丹·內丹)의 연단법에 얼시구 좋아라하고 집착하는 일도 수행의 무애경지에서는 우수꽝스러운 작위(作爲)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우녀가 "우리는 제발 너덜너덜한 허수아비가 되어 서리나 맞는 신세인지 모르겠어"라는 농담을 던지거니와 그 농담에는 인담도 동참해야 마땅하였다.

"참 재미도 있는 일이예요. 천축나라 영축산이 어디인데…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은 멀리 멀리 벵골만의 바다 한복판 그 밑에서 사는 바다 용왕 일행의 예방을 환영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대승의 법을 말씀하셔서 용왕 일행은 무척이나 기뻐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나는 부처님보다 그 바다의 용왕을 훨씬 좋아하는데… 그 천축 내륙의 산중에까지 그 일행을 데리고 찾아온 진리에의 발원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 멋진 용왕을 맞아들인 부처님도 강과 냇물이 함께 들어와도 옛 이름이 없는 것. 여섯째,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증감이 없는 것. 일곱째 수많은 종류의 고기가 함께 사는 것. 여덟째 짠 맛이 바다 한가운데나 바닷가나 똑같은 것들을 손꼽았다.

우녀가 그런 인담의 말을 이었다.

"그런즉 우리는 그런 많은 바다의 덕택으로 우리 공부가 이만큼 손톱 사이에 끼어든 때만큼이라도 되어 그것이 3천대천세계의 이쪽과 저쪽만큼 넓은 것과 다를 바 없겠지."



낙조에 물든 무욕도가 마구 떨었다…파도도 날뛰었다

그때였다. 우녀가 인담의 몸을 껴안으며 "우리가 언제 불을 끄고 살았던가. 이렇게 몇10년동안 늘 어 불어서 새끼를 퍼질러도 맞놀을 퍼질러 다른 세상에 각각 보냈던 것 아닌가."

인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때였다. 잔뜩 흐린 날의 짙은 잿빛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었고 기압이 낮아져서 파도들도 조금은 억눌린 것처럼 둔중하게 찰삭대고 있었다. 유난스럽게 바다냄새가 진하였다. 그런가 하면 높게 나르기를 좋아하던 어린 갈매기들이 낮게 파도 위를 기어가는 것 같았다. 제비들은 아예 보이지 않고 육지 쪽으로 건너간 모양이었다.

"술술 단전이나 채웁시다"라고 우녀가

"그렇다면 우리 몸에 불을 질러 태워버릴까."

"호호 인담선사도 제법이시네."

"한번 불질러서 잿더미나 이루어볼까."

그때였다. 우녀가 인담의 몸을 껴안으며 "우리가 언제 불을 끄고 살았던가. 이렇게 몇10년동안 늘 어 불어서 새끼를 퍼질러도 맞놀을 퍼질러 다른 세상에 각각 보냈던 것 아닌가."

인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암."

그때였다. 잔뜩 흐린 날의 짙은 잿빛구름이 먹구름으로 바뀌었고 기압이 낮아져서 파도들도 조금은 억눌린 것처럼 둔중하게 찰삭대고 있었다. 유난스럽게 바다냄새가 진하였다. 그런가 하면 높게 나르기를 좋아하던 어린 갈매기들이 낮게 파도 위를 기어가는 것 같았다. 제비들은 아예 보이지 않고 육지 쪽으로 건너간 모양이었다.

"술술 단전이나 채웁시다"라고 우녀가 그녀의 맨살 배꼽께를 들어내보이며 거침없이 말하였다. 이른 저녁의 약석(藥石-저녁공양)을 마치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벌써 후원으로 나가 찬밥을 차려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단전이 더운지라 찬밥도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었던가. 두 사람은 그런 찬밥을 먹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

하루에 한번만 밥을 지으면 되었다. 늦은 아침에 하품을 반찬으로 삼아 더운 밥을 먹으면 그것이 점심공양을 겸한 것이 되었다. 본당 불상에는 계절의 꽃 한 송이와 향 한 줄기 살라놓는 것으로 사시(巳時) 불공을 다하는 터였다.

두사람은 밥을 먹는지 안먹는지 모르게 아주 느릿느릿 밥그릇을 비워갔다. 우녀가 빈 밥그릇을 마치 정든 벗처럼 들어올려 "네가 나보다 공부가 잘되어서 텅 비었구나"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정작 인담에게는 전혀 딴 내용의 말을 거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만족한 상태의 독백이기도 하였다.

"인담스님, 곡차 한잔 생각나?"

"응."

그들에게 곡차란 솔잎을 어떻게 발효시킨 것인데 고대 인도에서의 술이 덜 된 상태의 사루가주(闍樓伽酒)인 셈이었다. 사루가주란 불멸후 1백년이 지난 뒤에 생긴 교단의 한 비법(非法)으로 마셔도 된다는 술이었다.

"곡차 있고… 계집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겠어? 인담스님, 당신은 참으로 바다의 덕을 다 누리는 장부로군."

"우녀스님이야 진작 여장부 아니던가."

그때였다. 솔잎의 차를 따르는 우녀의 손이 떨렸다. 아니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아니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방이 떨렸다.

무욕도 전체가 한껏 낙조에 물들어서 마구 떨고 있었다. 파도도 마구 날뛰었다. 지진이었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편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치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응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업무장역
543-7306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8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분양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 국가공인기관관리 ·
※ 불자 상담 환영
▶동대문최요지전문상가 8500萬 투자
▶1년후 : 2~3억원 (은행 대출3천만원)
▶본사보장 첫임대시, 保3千, 月90萬 책임보장
▶전화 : (02)264-2512
▶담당 : (과장) 최경란 합장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02)266-267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작인 수련법입니다.
• 체인에 의한 기억 · 강제인이 없다
• 호흡, 체조식, 명상 · 자연법 · 자율참여방법 실행
• 수련과정 및 불상조성수준 · 인간관계수련 · 명상수련
• 인간관심주제를 통한 나만 성장소그룹과 공부가 좋을 체험과 명상시나리오 호흡법주소 설치, 정소년단체 심성함육이 추천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배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원시 송파면 마동산 동남선원
연락
☎ 889)34-1115-6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축시토록 파헤친
기획물과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참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월화(해인사) 대웅광명 · 법상 · 경상
• 지광사(대구) 대웅존 수미단 문짝 문짝
• 서울(백화사) 법상 수미단 용각 제작함
• 충청(정보사) 대웅존 문짝
• 부산(범어사) 대웅전 영무장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존 문짝 문짝
• 충주(삼막사) 대웅존 수미단 법상 경막
• 마산(진주사) 대웅존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존 문짝 문짝
• 안양(천주사) 대웅존 수미단 문짝 문짝
• 서울(학림사) 화존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6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 · 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 · 청주 방가 주문제작
비디오 · 카세트 · 성탑집 · 탑배를 기획제작
720-1147(~8)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홍 정 수
■나이 : 30세
■키 : 165cm
95년 8월 집을 나감
사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할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태로 애타게 (청주한방병원 309호) 찾고 있으므로 위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나 본인은 급히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전화 : (02) 683-3252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우성타운 301번지

사찰주말농장

불심 가꾸는 열린공간

자연 질서·화목 배우는 학습장…교계 증가추세

도시근교의 사찰이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불자들의 건전한 레저생활과 새로운 포교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 '선농원'(0334-676-8700). 약 5백여평에 텃밭 1백여개가 늘어선 이 농장에는 가족단위의 '도시 농사꾼'들이 호미, 괭이, 삽 등의 농기구를 하나씩 들고 감자, 상추 시금치 등을 파종했다. "아빠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언제 싹이트나요" "석달가량 자라면 맛있는 반찬거리로 충분할 거야"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김영진씨(47, 서울 상왕십리동)는 자녀들에게 자연공부를 겸한 농사일을 가르치며 오랫만에 아이들과 함께 밭을 일구며 즐거워했다.

주지 송암스님은 밭이랑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괭이, 호미질이 어색한 불자들에게 농사일을 일일이 가르쳐줬다. 자연을 벗삼아 어린이들이 흙장난에 정신을 파는 동안 보살들은 인근 논둑과 밭둑을 오가며 고들빼기, 쑥 등의 봄나물을 뜯으며 금새 친숙해졌다.

사찰에 딸린 텃밭은 도시인들에게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가족단위로 사찰에서 여가를 즐기며 직접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1백여평 남짓한 사찰의 텃밭은 분양받아 경작하는 주말농장에 비해 부담감이 적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찰 텃밭은 유기농법으로 스님들과 가족이 함께 무공해 채소를 직접 수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텃밭 경작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자녀들에게 땀흘려 농사를 지으며 수확기에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을 직접 경험케하는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사찰의 주말농장은 부처님의 품안에서 숙박을 하면서 기도 등의 신행활동까지 겸할 수 있어 불자들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찰주말농장은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불자들이 가족단위로 건전한 여가생활과 신행활동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접 씨뿌리고 수확 보람 '만끽'

열무·상추등 무공해 야채 식탁에

지난해부터 사찰인근의 유휴지에 경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박남진씨(45, 경기도 일산)는 "유명관광지는 레저생활을 즐기는 인파들이 급증해 짜증나기 쉬운 요즈음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사찰만한 곳이 없다" 며 "취미삼아 경작해 거둬들인 무공해 야채로 식탁이 일년내내 풍성했으며 아이들에게 사찰의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신심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자랑했다.

부산 자비마을(원장 본원)은 신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자비농장'(051-553-0643)을 운영하고 있다. 자비농장은 약 1천여평에 율무를 심어 염주를 만든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진 염주는 전국의 각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인스님들에게 보시한다. 또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결명자와 야채류의 씨앗을 파종해 자급자족하기도 한다.

충북 음성 미타사(주지 명안)도 그동안 스님들이 관리해 오던 1만여평의 '희원농장'(0446-72-2928)을 금년부터 신도들이 직접 관리하는 위탁관리제로 전환했다. 희원농장은 6만원 내외의 회비를 내면 10년생 사과 배나무를 분양받아 관리하게 된다. 희원농장측은 "가족끼리 농사도 지어보고 가을엔 수확물을 거두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위해 주말농장을 개장했다"며 "농기구등을 비롯 전문적인 과수원관리는 농장측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사찰의 자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신행활동과 아이들의 자연학습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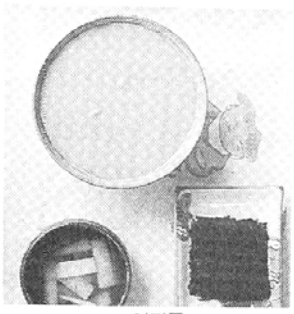
김중근 기자

사찰 전통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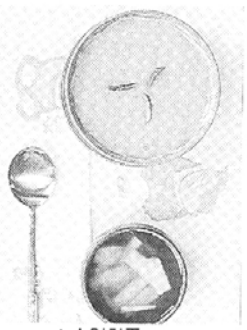
직장인 아침대용 '인기'

연자죽·차팔보죽등…환자·노인 건강식 적격

최근 아침식사를 걸르기 일쑤인 바쁜 도시인들의 건강유지와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죽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옛부터 스님들의 건강비결이 듬뿍 담긴 연자죽 차팔보죽 등 전통사찰죽은 환자식이나 노인식 이유식 건강식 등으로 안성맞춤이다. 입맛이 없고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을 맞아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회가 지난 9일과 10일 경북 왜관과 대구 칠보사에서 발표한 전통사찰음식중 죽 만드는 비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연자죽



◇솔잎차죽

연자죽 연씨를 먼저 갈아 둔다. 여기에 쌀이나 찹쌀 현미 중 하나를 선택해 불려서 간다. 연씨 2백그램 분량에 불린 곡류 한 컵정도 비율로 물 1.8리터를 넣고 연한 불에 한참 끓인다.

다 끓인 뒤 연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 대추 3~4개를 썰어서 넣어주면 더욱 좋다. 연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회복기 환자들의 식사로 제격이다. 밥투정하는 어린이들의 입맛을 돋구는 데도 좋다.

차팔보죽 현미 찹쌀 검은깨 율무 메주 보리쌀 검은콩 등을 가루를 낸다. 이때 양은 검은깨만 1kg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두 1되 정도로 빻아두면 4~5인 가족이 3개월정도 넉넉히 아침식사로 먹을 수 있다. 큰 컵으로 2/3정도의 가루에 4컵정도 양의 물을 부어 약한 불에 끓이다가 작설차 등 차를 작은 가루로 낸 가루차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대추채나 잣을 곁들여 먹으면 당뇨나 비만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마죽 은행과 마를 고루 가루를 내고 찹쌀과 현미가루 중 하나를 넣어서 미지근한 불에 끓이면 된다.

대추와 잣을 곁들이면 더욱 좋다. 은행은 천식과 기침에 효과가 뛰어나며 마는 자양 강장과 피로회복용으로 예로부터 애용되고 있다.

솔잎차죽 이른 봄에 자란 깨끗한 솔잎을 채취해 잘 말려 가루를 낸다. 여기에 가루를 낸 찹쌀 현미 옥수수 등을 잘 섞은 다음 전지분유를 넣고 죽염으로 알맞게 간을 맞추면 된다. 솔잎차죽은 옛부터 수행하는 스님들의 건강식으로 사용됐다. 또 동맥경화, 관절염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여러 가지의 장 *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시시한 쾌락은
기꺼이 버려라

이 항 원



불을 가득 법향 가득 … 책방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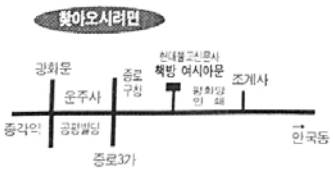
1년 365일
모두
부처님 오신 날 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

특별히

그 깨침의 말씀
더욱
가슴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부처님 오신 날 추천 도서 20선

❶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
불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불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저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경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무비 지음 / 신국판 393쪽 / 민족사 / 값 8,000원

❷돌부처
천년의 세월을 침묵과 미소로 지켜 온 경주 남산 돌부처들의 얼굴에서 숭랑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재발견하며 다시 그 가운데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근후 지음 / 신국판 256쪽 / 출판사 여시아문 / 값 6,500원

❸기도
전계 대화상 일타스님이 자신의 도반, 제자 등 주변 사람들과 억대 고승들의 영험담을 통해 기도가 깨달음의 세계를 여는 수행 방법의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다.
일타 지음 / 신국판 237쪽 / 효림 / 값 5,000원

❹달을 듣는 강물
경허 스님의 제자로 만공, 혜월과 함께 경허의 세 달로 알려진 고승 수월스님의 수행 여정을 담았다. 일하는 수행자, 수행하는 일꾼으로 살다 간 스님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김진태 지음 / 신국판 283쪽 / 해냄 / 값 6,500원

❺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 스님의 자경문(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으로 일타 스님 자신의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예화를 곁들였다. 부록으로 독송용 원문과 번역문도 함께 실었다.
일타 지음 / 신국판 285쪽 / 효림 / 값 5,000원

❻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절을 찾는 모든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350여 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실었다. 절에서 지킬 예절과 그 의미, 그리고 절에서 보고 듣고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권영한 지음 / 신국판 374쪽 / 전원문화사 / 값 15,000원

❼우물을 파는 개구리
정토 포교원에서 개최한 불교 교양 강좌 시리즈 가운데 '창조적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법륜 스님이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 자신을 특정 우물 안에 가두지 말고 넓고 큰 바다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진정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륜 지음 / 신국판 215쪽 / 정토 출판 / 값 4,800원

❽금강경 강의
무비스님의 명쾌한 금강경 해설서. 불교라는 거대한 산맥을 앞두고 막막해하는 도든 이들에게 확실한 답안으로 제시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며 금강경을 잘 이해하면 인생과 삼라만상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한다.
무비 지음 / 신국판 284쪽 / 불광 출판부 / 값 5,500원

❾과학과 불교의 신비
일본 융 심리학의 창시자로 어린이·여성에 관한 문제로부터 현대사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해 온 저자가 뉴 사이언스와 동양사상을 함께 논한 책.
아끼이마 사또오 지음·김인재 옮김 / 신국판 217쪽 / 고려원 / 값 4,000원

❿불교의 체계적 이해
한국 불교사상연구에 한 획을 그은 고 고익진 박사의 불교학 개론서. 대소승의 주요 경전인 삼부경을 논리정연하게 하나의 근본교설로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불교 사상의 전체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훌륭한 지침서이다.
고익진 지음 / 신국판 326쪽 / 새터 / 값 7,000원

⓫한글 아함경
한글 대장경 아함부 가운데 수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전을 법상의 체계에 맞춰 엄선했다. 저자는 아함에 관한 연구 없이는 불교학의 기초를 다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교공부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아함경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다.
고익진 편역 / 신국판 693쪽 양장본 / 동국대 출판부 / 값 12,000원

⓬두 손 모은 곳에 자비가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활불교 지침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절에서 지킬 예의, 알기 쉬운 불교 기초 상식, 설화 등을 총망라했다.
불교문화진흥회 엮음 / 신국판 257쪽 / 관음 출판사 / 값 6,000원

⓭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조계종 수선회 부회장인 김원환 씨가 한국·중국·일본의 90인 오도송을 모아 깨친 인연별(인·이·비·설·신·의)로 엮은 책.
오도송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한 대자유의 노래로 언어와 감각을 초월한 고승들의 수행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김원환 지음 / 신국판 291쪽 / 우리출판사 / 값 6,000원

⓮중관사상
인도 중관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개설적인 입문서이자 전문 연구서. 중관불교는 유식불교와 밀교를 창출한 불교의 중심사상이다.
카지야마 유이치 외 지음·은정길 옮김 / 신국판 377쪽 양장본 / 경서원 / 값 12,000원

⓯선가귀감(禪家龜鑑)
서산대사 휴정의 대표적 저술로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어온 선(禪)의 사상과 방법을 간추린 일종의 선학 개론서이다. 출가정신의 회복이 불교중흥의 첫째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익·심재열 강설 / 신국판 352쪽 / 보성 출판사 / 값 9,000원

⓰선의 세계
선의 세계를 인식론적 측면에서 규명, 비논리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읽고, 체험할 수 있다.
고형곤 지음 / 신국판 양장본 각권 약 370쪽 / 운주사 / 값 13,000원

⓱불교 길라잡이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 불교의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는 책. 자의적 해설보다는 객관적 시각으로 경전과 어록, 고승들의 저술과 비문을 인용·서술하고 있다.
곽철환 지음 / 4×6배판 양장본 364쪽 / 시공사 / 값 18,000원

⓲팔리경전이 들려주는 고타마 붓다
칼리어로 된 원시불교 경전 5니카야 가운데서 9개의 경전을 뽑아 고타마 붓다의 수기, 탄생, 성도, 전법, 열반까지 하나로 이어서 볼 수 있게 엮었다.
최봉수 옮김 / 신국판 339쪽 / 불광출판부 / 값 6,000원

⓳인간 붓다
부처님을 숭배나 학문 탐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상적 삶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였다.
법륜 강의·박수일 엮음 / 신국판 463쪽 / 정토출판 / 값 8,200원

⓴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이솝 우화의 원형이 된 불전 문학의 백미(자타카) 가운데 비교적 흥미있고 교훈적인 것 32가지만을 가려 뽑아 엮은 책.
신지우 엮음 / 신국판 296쪽 / 불교시대사 / 값 6,000원

책방 여시아문
초고속 인터넷
무료 검색 서비스 제공!!
(부다피아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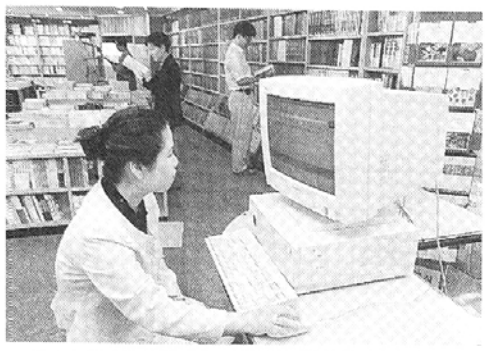
— 책방 여시아문에 오시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시아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초고속 56 K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몸만 오세요)

— 특별회원을 위해 전자우편 주소도 할당해 드립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위한 모든 소프트 웨어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인도 불교, 티벳불교, 일본불교 등 전 세계 불교 관련 정보를 검색, 프린트해 가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지난 3일부터 인터넷 '싸이버 책방 여시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로 집에서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교계 '싸이버 책방' 등장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화상통해 불서 열람…구매도 가능

불교계에 드디어 '싸이버(Cyber) 책방' 시대가 열렸다.

책방 여시아문이 지난 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싸이버 책방 여시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책방 여시아문'이 제공하는 신간·추천도서의 간략한 내용과 책표지 화상을 보고 집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 〈여시아문〉에는 △여시아문 △이달의 소식 △금주의 신간불서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995년 베스트 20 △도서회원 가입 및 통신 판매안내 등의 메뉴가 마련되어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여시아문 △금주의 신간불서 코너.

메뉴 △여시아문에서는 '새책보기' '경전 가까이 하기' '좋은책' 등을 통해 사부대중에게 유익한 불서를 권하는 한편 '독자가 쓴 나의 독서 일기' 코너를 마련해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그리고 △금주의 신간 불서 코너는 매주 주목받는 신간불서의 간략한 내용·저자·가격 외에도 책표지를 화상으로 제공해, 멀티미디어 싸이버 책방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싸이버 책방 여시아문은 베스트 셀러·신간·추천도서 등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싸이버 책방 이용 방법
〈http://www.buddhapia.co.kr/book-you2/〉

"온가족 함께 불서읽는 5월"

동화·만화 통해 부처님 가르침 쉽게 접근

서로 돌려보며 교리·신행·환경 등 토론

'TV만 보는 엄마, 신문만 보는 아빠'.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5월 가정의달에 어린이와 엄마 아빠가 함께 읽을만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기 부처님오신 초파일, 어린이 선물용으로 불서가 널리 권해지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불서 선물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시킬 수 있는 책들은 다양하다. 경전이나 설화,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의 소재가 불교교육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고, 환경과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창작 동화와 만화도 어린이들에게 불교적인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어 좋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의 동화와 만화는 자칫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불교교리와 역사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다.

어린이 교육문화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회장 곽정란)의 〈어린이 도서목록〉을 참고로 불교관련 어린이 도서를 분석하면 불교교리, 불교설화, 전기, 역사, 경전, 문화재, 환경 등을 담은 책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전하고 있다.

먼저 불교교리와 경전을 쉽게 소개하고 있는 책들로는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좋은 인연) 만화(부처님의 전생이야기)(사사연) 〈어린이 불교〉(동국역경사업진흥회) 〈어린이 팔만대장경〉(현암사) 등이 손꼽힌다. 이밖에 환경동화 〈푸른별의 환경 파수꾼〉(푸른나무), 문화재 이야기책 〈보름달 도둑〉(대원사) 등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에게 맞는 좋은 불서의 조건으로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아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고 △주제가 뚜렷하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주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현실을 담고 있고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문학성이 있으며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어린이들에게 권할만한 책들

분류	도서명	저자	출판사
교리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우학	좋은인연
	어린이불교	편찬위원회	역경사업진흥회
	만화 석가모니	박기준	우등생
경전	어린이 팔만대장경	신현득	현암사
	백유경	향봉	밀알
전기	알 수 없어요	노혜봉	신구미디어
	진흙속에서 피어난 연꽃	이슬기	불광
	하얀 무지개	이슬기	불광
역사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산하
	신라 이야기	윤경렬	창비사
	어린이 삼국유사	김성원	명문당
설화	호랑이 꼬리에 지은 절	이준연	대원사
	서유기	김정호	창비사
	용궁에서 온 강아지	이준연	고려원미디어
환경	푸른 별의 환경 파수꾼	문명식·주선회	푸른나무
	동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실비 지라르데	동아출판사
	어린이가 지구를 살리는 31가지 방법	존 자브나	현암사
문화재	흥미로운 국보여행	배봉기	산하
	보름달 도둑	김숙희	대원사
	웃고있는 보물들	이형권	대교출판
만화·기타	만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남교희	사사연
	만화 화엄경	임기준·조성연	불교만화사
	만화로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아빠, 난 아빠같은 아빠가 될래요	박상욱	가리온

〈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 참조〉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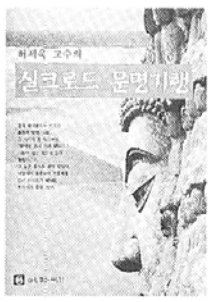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혜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경각
4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원한	우리출판사
5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7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8	알기쉬운 법화경 강설	능 가	대흥기획
9	선의 정신의학	김종해	한강수
10	업보	혜 범	밀 알

책방 여시아문 집계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실크로드 문명기행

—허세욱 지음



동서 문명 융합의 대동맥으로 세계교역의 1번 도로였던 곳. 지금도 실크로드에는 우리의 얼이 찬연하게 빛나고 있다. 신라의 고승으로 중국 불교계를 움직였던 혜초와 원측, 말을 달려 넘었던 고구려의 명장 고선지, 가깝게는 최

혜초·원측·고선지등 선조들 발자취 따라

초로 벽화를 연구한 재중동포 한낙연 등 그곳에서 우리는 실크로드의 이방인이 아닌 우리 선인들의 체취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

고려대 허세욱교수(중문과)의 〈실크로드 문명기행〉은 중국에서의 강의와 문화유적 답사를 토대로 한 문명 탐사기다. 신라의 고승 원측과 혜초의 발자취가 서린 당대불교의 성지 섣서성, 화염산 기슭에 핀 불교예술의 꽃 '베제크릭 천불동(千佛洞)'과 무자트강 벼랑위의 236석굴 '키질 천불동', 사원 1백여채의 흙담만 남아 있는 불교의 거점도시 쿠처 등 불교문화의 전파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한교과서 1만원〉

출판 소식

"원효스님 정토사상등 현장감 물씬"

이도학씨 '꿈이담긴 한국고대사 노트' 펴내

자칫 딱딱해 지기 쉬운 역사 공부의 재미와 즐거움, 경이로움을 함께 갖춘 책이 나왔다. 서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이도학의 역사 이야기'의 진행자 이도학씨(연세대·한양대 강사)가 쓴 〈꿈이 담긴 한국고대사 노트〉(상·하, 일지사 刊)가 그것이다.

이 책은 한국고대사가 전공인 이도학박사가 오랜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역사지식을 쉽게 풀어 쓴 글이다.

저자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었던 원효의 정토사상, 궁예가 그리던 미륵세계 등 역사속 인물들의 진지한 생애와 그들의 고뇌하는 모습 등을 현장감을 담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 부여에서 출토된 사리감 명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란 글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사리감(舍利龕) 명문을 통해 능산리 절터의 창건 배경과 사리감 명문이 지닌 의의를 자세히 분석했다.

日만화 '싯다르타 왕자' '부처님 일대기'로 번역

춘광출판사(대표 정춘석)는 데스카 하루무시 원작의 만화 〈싯다르타 왕자〉(전 14권)를 〈부처님의 일대기〉로 번역 출간했다. TV만화영화 '사파이어 왕자'와 '우주소년 아톰'을 현대적으로 각색해 청소년과 성인들이 경전내용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8년만에 편찬작업 회향… 선어·공안·인명·지명·서명·사원명 등 9,100여 표제어 수록

禪學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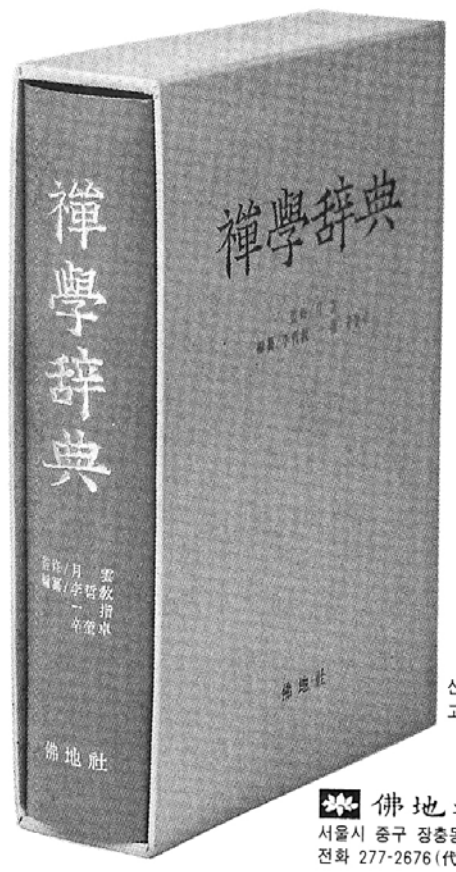
祖師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뗏목이 필요합니다

편찬 내용

1. **용어**는 각종 선문헌에 실려있는 선어, 청규, 성구, 구어, 속어 등 5,156 항목을 선정하여 내용과 용법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2. **인명**은 선종의 어록과 전기 관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중에서 수행 교화 저술등에 큰 공적을 남긴 1994년까지의 인물 2,253명을 선정해, 생몰년·소속종파·속성·법호·출신지·사승·수행경력·가풍·저술·시호·관계자료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지명**은 저명한 선승들의 활동 지역과 사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32항목을 골라 옛지명과 현대의 지명을 함께 밝혀 놓았습니다.
4. **서명**은 선에 관한 간본·사본·돈황문헌을 중심으로 705항목을 선정해 그 문헌이 실려있는 총서 내의 권차와 편차를 해설문의 끝에 밝혀 놓았습니다.
5. **사원명**은 저명한 선승이 주석했던 사원과 유형 무형의 선문화 유산이 있는 사원 157항목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공안**의 명칭은 중복과 혼용을 가려 695항목으로 정리해 문답하는 인물과 내용을 출전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명칭은 공안집의 예를 따랐습니다.
7. **편찬 자료**로는 그동안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선불교 관련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발행된 선종관련 문헌과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특 징

1. 선종 관련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 총 9,100여 항목을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편찬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2. 기존의 사전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수록 해설한 우리의 선종사전입니다.



신국판 / 1,000쪽 /
고급 양장케이스 / 값 45,000원

佛地社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전화 277-2676(代) 팩스 278-9118

3. 각 항목마다 해설의 말미에 출전과 예문을 소개해 상세한 주석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선어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당·송대의 구어와 속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풍부한 어문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방대한 선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 등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부록으로 엮었습니다.

부 록

1. **선종사연표** : 국내, 국외(인도 중국 일본)순으로 선가의 주요 사실들을 B.C. 544년부터 A.D. 1994년까지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2. **선종법계도** : 선종의 법맥계승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종의 법계도는 태고 보우 이래 청허 휴정의 법계를 주안으로 삼아 수록하였습니다.
3. **선종사지도** : 불교가 전개된 주요 지역의 산이름과 사원 명칭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서목록** : 선종과 관련된 경·율·론의 주요 전적과 선종 문헌을 나라·종파·시대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선학참고문헌일람** : 국내외의 선학사전및 일반 불교사전·연표·인명사전·목록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감 수

월 운 스님 봉선사 회주 / 前 동국대 역경원 원장

"곁에 두고 살펴보니, 낱말의 선정 연대 출처 고증 내지 범어표기와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어 실로 주옥같다는 말로 표현함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
('감수의 말' 중에서)

편 찬

이철교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일 지 / 해인사 강원및 율원 졸업 • 수국사
신규탁 / 일본 동경대 문학박사. 중국불교사 연구 • 연세대 철학과 교수

전국 대형서점과 사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로 다량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277-2676)

"경주전역서 聖師 기린다"

원효문예대제전 16·17일 분황사·황룡사지등서 열려

제향의식·호기놀이·무애가무마당등 풍성

불국토 기원 담아 1310개 연 하늘에 띄워

한국불교사상 가장 뛰어난 고승 원효스님(617~686)을 기리는 대규모 문화행사 '원효문예대제전'이 열린다.

오는 16·17일 양일간 분황사 황룡사지 경주시내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원효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의 주관으로 제향의식 춤 강연 무차대회 열립마당 노래 마당 극 탑돌이 등 다양한 장르의 행사가 어우러진다.



◇경주 분황사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스님 영정.

범시민 축제가 될 이번 행사는 16일 오전 10시 분황사에서의 봉찬의식으로 시작된다. 1부는 불교전통의식으로 원효성사제향의식이 봉행되고 2부 이노연씨의 승무, 3부 김영태 박사의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특강이 있으며 당일 오후 1시부터는 풍물과 노래자랑의 무차대회가 열린다.

17일 오후 4시부터는 풍물패 깃발패와 원효·대안스님 요석공주 선덕여왕 광대들을 가장한 행렬패가 경주시내 일원에서 길놀이 및 호기놀이를 시연한다. 호기놀이란 고려시대 초파일을 기해 어린이들이 경구가 적힌 깃대를 들고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 그 돈으로 부처님께 등을 켜는 놀이의식. 황룡사지에서 열리는 열림마당은 법고 범종 목어 운판이 울리는 가운데 원효스님 열반주기 수대로 1천3백10개의 연을 하늘로 띄운다. 김지하시인의 작시와 김영동씨 작곡의 '원효의 노래'도 불려지며 춤패 춤누리의 열립춤이 펼쳐진다. 경주향토사학자 윤경렬옹의 이야기, 화랑 선무도의 무예한마당, 김덕수 사물놀이팀의 풍물 한마당도 흥겨움을 더한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7일 저녁 9시부터 황룡사지에서 열리는 '무애가무마당'. 극단 자갈치가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를 주제로 한국불교의 신새벽을 연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마당극으로 보여주고 극이 끝나면 참석자 모두가 원효스님이 추었다는 무애가무를 추면서 연등행렬을 벌인다. 황룡사지 금당터에 연등행렬이 도착하면 레이져빔이 원효성사의 형상과 황룡사9층탑을 하늘에 재현하고 그 아래 마당에서는 영산회상 물보살춤이 한바탕 벌어질 예정이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다양한 행사를 통해 원효스님을 오늘에 재현하고자 하는 분황사 주지 종수스님은 "성사의 화쟁 무애사상을 오늘에 선양시켜 민족정신과 한국불교발전에 견인차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동국대 90년기념
고은선생 초청강연

"대장경은 불교문학 寶庫"

"부처님의 언설을 모은 팔만대장경은 그 자체가 무궁무진한 불교문학이다."

고은 시인은 지난 6일 동국대 개교 90년과 문학의 해를 기념해 가진 정각원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전제했다. 고은시인은 "불교문학은 여전히 과거에만 안주하려 해 침체돼 있다"며 "꼭 '佛'자가 들어가야만 불교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저절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문학을 개척해야만 불교문학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가 최근 구입 최초 공개한 〈대반야바라밀경 권368〉 초조 대장경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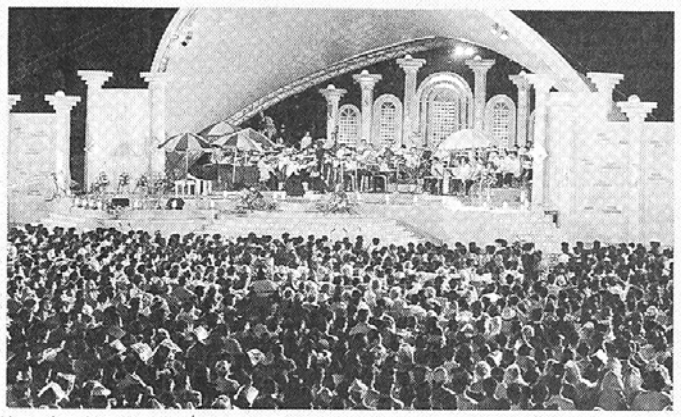
동국대 소장 국보·보물 '볼 기회'

24일까지 東大박물관 '수능엄경' 등 55종 전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립 동국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 등 귀중한 문화재급 귀중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동국대는 오는 24일까지 동국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국보 보물 귀중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일반에 공개되기는 처음인 이번 특별전에서는 〈수능엄경(국보 212호)〉10권 완질본을 비롯 〈보살선계경 권8(보물 740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변상도(보물 390호)〉 〈석보상절(보물 523호)〉 〈월인석보(보물745호)〉 등 국보 1건, 보물 11건 등 총 55건이 공개되고 있다. 〈대반야바라밀경 권368〉은 약 2백권 정도만이 남아있는 초조대장경의 일부로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것. 또한 〈묘법연화경〉 〈불설대목련경〉 〈불설대부모은중경〉 등에는 다양한 변상관화가 삽입되어 있는데 16세기 불화 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동국대 열린음악회



동국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7일 대운동장에서 3만여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음악회에서 박범훈교수가 지휘하는 불교중앙합창단과 만능엔터테이너인 불자 김성녀씨의 찬불가 '거룩한 손'(목정배작사 박범훈작곡)의 공연은 거룩한 삼보의 언덕 동국대학교 교정 곳곳에 울려퍼져 간간히 흩뿌리는 빗방울과 함께 더욱 운치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송석구총장을 비롯, 황명수 총동창회장, 최형우 동문(신한국당 국회의원) 등과 동국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미시건대학과 일본 용곡대학의 친선인사들도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세계적인 현대음악작곡가 故 윤이상씨의 음악세계를 조명해 보는 음악회가 열린다. '비천(飛天), 겨레의 하늘을 날아…'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음악회는 KBS홀(5

윤이상추모음악회
15일 KBS홀·17일 동대



◇故 윤이상씨.

"飛天, 겨레의 하늘을…"

불교사상담긴 '바라' 국내 첫연주

월 15일 오후 7시30분)과 동국대 교정(5월 17일 오후 5시)에서 각각 개최된다.

그토록 오고 싶어했던 고국에서 그리고 사찰에서 자신의 곡을 연주하고자 열망했던 윤이상씨의 한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기회가 될 이번 동국대에서의 음악회는 불교를 주제로 한 관현악곡 '바라'를 비롯 그의 초기 가곡 및 기악곡들로 구성된다.

타계하기 일년전인 지난 94년 송담스님(인천 용화사 조실)으로부터 정식으로 수계를 받아 '청공(靑空)'이라는 법명을 받을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한 윤씨는 '바라'외에 '오, 연꽃속의 진주여' '나모(南無)' '옴마니반메훔' 등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주옥같은 곡을 여럿 남겼다. 동서양 음악의 접목을 꾀해온 그의 음악혼을 분단극복과 화해의 정신으로 되살리는 이번 음악회는 윤이상과 같이 활동했던 독일의 현대음악 연주자들이 출연 연주한다.

전시회

현대불교미술展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동국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현대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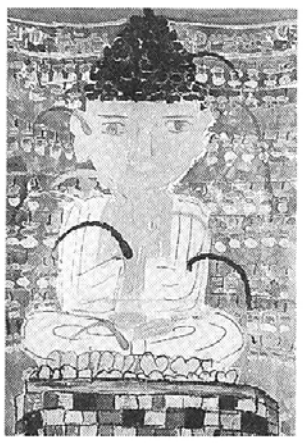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문명대 강순형 김대열 김종섭 진칠문 박명순 조성호 김정희씨 등 30여 회원들의 불화 현대화 조각 등 불교를 소재로 한 40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제3회 불미협展

제3회 한국불교미술인협회展이 5월15일부터 21일까지 덕원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영화씨의 '산은 산이요' 김길연씨의 '헤바라기' 김대열씨의 '바람소리' 정경연씨의 '무제 95·Ph' 현정씨의 '원융무애' 이호신씨의 '경주남산' 등 31작품이 출품됐다.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 제2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리기대회에서 최미나양(충북 옥천 백운사자비어린이회·청산초등교 6년)이 종합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국 각 사찰 어린이회와 유치원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참가, 총 8백여점의 그림이 접수됐다.



◇제2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한 최미나양의 그림.

부처님그리기 최미나양 '대상'

이번 행사에서 대상(봉축위원장상)에 심지연양(서울성심사어린이회·미로유치원),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서울 조계사 어린이회, 옥천 백운사자비어린이회, 인천 영산유치원 등이 차지하는 등 본상 15건, 입선 200명 등 다수가 입상해 박수를 받았다.

문화소식

만해스님 낭송시 선집

〈님의 침묵〉등 만해 한용운스님의 시를 낭송한 낭송시 선집음반이 나왔다. 수창음반 간. 이번 낭송시 선집은 '알수 없어요' '복종' 등 88편의 시가 성우 이정구씨의 낭송으로 녹음됐으며 국악과 클래식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있다.

'밀린다왕문경' 등 CD롬

불교문헌자동화연구실(실장 혜묵)에서는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불교성전〉 〈밀린다왕문경〉 〈지혜과 자비의 말씀〉등 3종의 경전을 묶어 CD-ROM으로 출판했다. 이번에 출판된 디지탈 불경들은 제목, 본경문, 경문의 이해를 도와주는 주해, 각 구절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한국불교 홍보책 발간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홍보책자 〈Korean Buddhism·사진〉을 발간했다. 불국사 석굴암부처님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표지로 해 4×6배판 올칼라로 나온 〈Korean Buddhism〉에는 불교개론·역사, 한국불교의 특징, 주요사찰, 불교예술, 부처님의 가르침, 결론 등이 사진과 함께 들어있다. 조계종은 해외 한국 포교당, 세계 주요대학 도서관과 재외 한국 공사관, 유스호스텔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판매가 미화 15달러. (02)737-9684



◇기사념쳐 '불심시심'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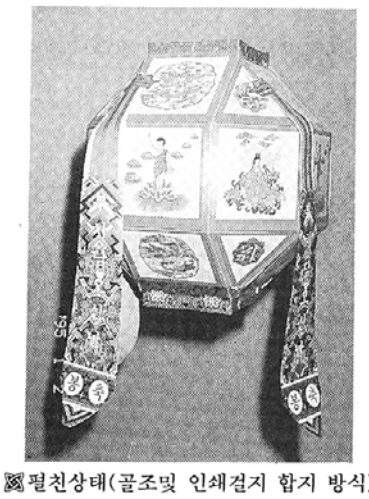
에밀레종 안전진단 받는다

국보 제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이 주조된지 1천2백25년만에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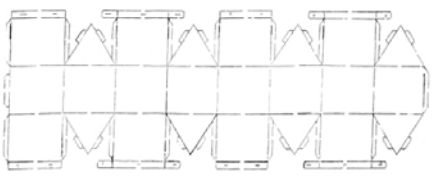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지건길)은 지난 8일 에밀레종의 음향 규명과 안전성 여부 및 지속적인 타종여부를 가리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안전진단을 건의,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대로 포항제철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 오는 6월부터 종합진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기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 난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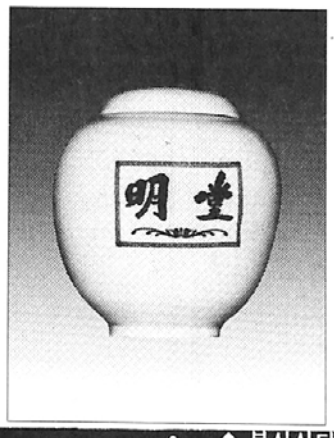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황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빙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254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방송과 불교TV가 공개방송에서 다큐멘터리까지 다채로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불교방송은 부산(19일 오후2시)과 광주(22일 오후6시)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을 각각 로컬 생방송으로 중계할 계획이며, 불교TV는 오는 20~26일 일주일간을 부처님 오신날 맞이 특집 방송기간으로 정해 큰스님들의 동중학교 이욱태법사, 대한불교신문 박도환 편집위원이 출연, 불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불교 TV

■미국불교의 새바람(20일~23일 오전 11시10분)=미국 현지 최고의 불교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구인들의 눈에 비친 불교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한다.

BBS 초파일 특집 다채 btn

부처님 오신뜻 영상·전파로 온누리에

법문과 해외특별기획 등을 방송하게 된다.

BBS

■특집 공개방송 깨침과 나눔의 세상열기(23일 저녁 8시5분)=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로 장애인 가수 김연택, 국악인 김성녀등이 출연한다.

■특집좌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은(24일 오전 11시5분)=부처님 탄생 당시 인도의 시대적 배경과 부처님의 삶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24일 저녁 8시5분)=전통적인 가치가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현대화된 국악 교성곡을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24일 오후 5시10분)=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삶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진정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생방송 대토론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하여(24일 8시 5분)=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실천방법에 대해 집중조명하는 시간.

■특집좌담 부처님 오신날 어떻게 맞을 것인가(불교부산 방송 24일 오후 4시10분)=해동중학교 이욱태법사, 대한불교신문 박도환 편집위원이 출연, 불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해외현지르포 캄보디아인의 미소-앙코르 왓트(22일 오전 11시10분)=힌두교와 불교가 혼합된 앙코르 왓트 복원 현장으로 불자들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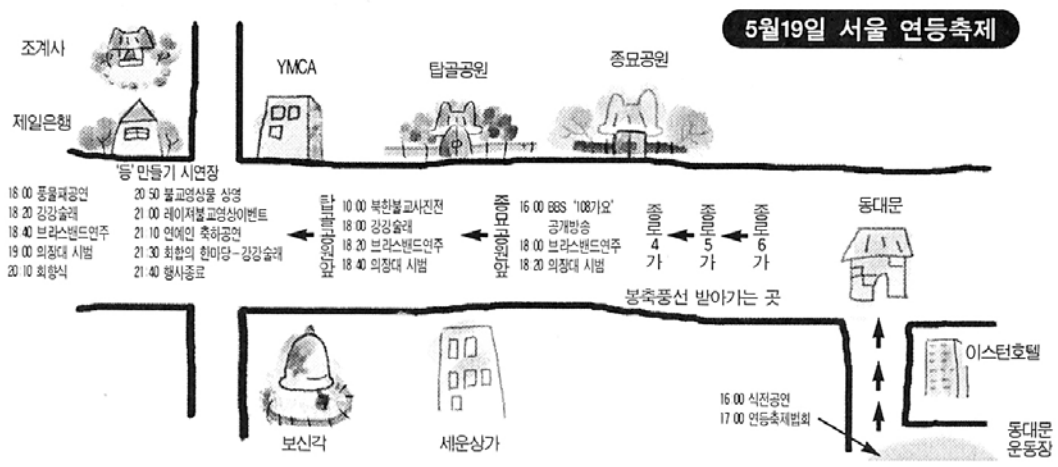
■해외현지르포 다시일어서는 베트남(23일 오전 11시10분)=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승불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고려대장경 1, 2부(24일 12시30분, 25일 낮 12시50분)=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의 신비를 재조명, 문화유산적 가치와 신앙적 측면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킨다.

■영상포엠 내원사의 하루(25일 오전 11시10분)=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인 내원사의 아름다움과 그 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활을 무언의 메세지로 전달한다.

■다큐멘터리 열손가락에 실린 부처님 사랑(23일 낮 12시55분)=부산에서 농아들을 포교하고 있는 강주수 보살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낸다.

■불탄절 특집 법문(24일 오전 10시50분) =법정스님과 이계진씨의 대담형식으로 '왜 다시 무소유인가'를 주제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제언을 중계한다.



전국 곳곳서 봉축연등축제

이웃돕기·문화행사등 풍성…국민동참 기회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가 연등축제로 바뀐 가운데 서울을 비롯 전국의 지역 봉축위원회 주관으로 각종 행사가 한창이다.

19일, 서울의 경우 동대문에서 보신각까지를 연등축제거리로 정하고 오후 2시부터 저녁10시까지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펼친다. 특히 금년 봉축행사는 예년과 달리 단순한 제등행렬에서 탈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가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청소년을 위한 열린법회(18일, 통도사 포교원) 삼보일배 거리법회(18일, 마산 정법사~창동거리) 전야법회(19일, 사직실내체육관) 경로우안잔치(19일, 마산중리사회복지관) 교도소 구치소위문(22일, 김해교도소 부산구치소) 국민회합기원 점등대법회(23일, 삼광사) 제4회 백일장 및 찬불가경연대회(24일, 삼광사)

광주 5.18민주항쟁영령 추모법회(18일, 도청앞) 점등식 및 탑돌이(19일, 도청앞)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22일, 광주공원) 봉축백일장(28일, 어린이대공원)

전주 연등제(16일, 35사단 세병호) 소년원 위문(18일, 전주소년원) 연등축제(19일, 전주시청광장) 불교사상강연회(19일, 전북불교회관) 청소년음악회(21일, 금산사) 모자원 위문(22일, 이산모자원)

대구 군·민 합동수계법회(19일, 무열사) 가족찬불가경연대회(20일, 고려예식장) 시각장애인 복지기금마련 일일찻집(21일, 남문시장내 신라다방) 봉축법회 및 제등행렬(24일, 두류공원) 맹인불자 갓바위등반대회(28일, 갓바위)

강원 점등법요식(10일, 통일전망대) 봉축기념강연회(19일, 춘천문화예술회관) 노인위문잔치(16일, 신흥사포교당) 봉축대법회(24일, 원주고수부지)

경기 불자의 밤(20일, 의정부포교원) 연등만들기대회(20일, 광동여고) 연꽃 한마음축제(22일, 광동여고) 불자미술인전시회(18~22일, 부천시 홍보전시관) 불교사진연합회 전시회(23~30일, 부천시 홍보전시관) 봉축법요식(24일, 의정부시청앞)

청주·청원 봉축대법회및 제등행진(18일, 무심천 체육공원) 풍주사 관음사 평화사 등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소속 각 사찰들은 12일부터 23일까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소년원 등을 방문 위문활동을 펼친다.

여래종 총무원 이전 현판식

여래종(총무원장 혜안)은 지난 6일 종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총본산 건립지인 충북 음천 만덕사에서 종정 인왕스님 원로원장 무공스님 감찰원장 법우스님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이전 현판식을 가졌다.

한편 여래종 경기교구(원장 범오)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성남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태고·진각·총지종 전방 OP 연등점등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이 불탄일을 맞아 통일 기원 연등점등식을 거행했다.

태고종 백진결사회는 지난 10일 동부전선 을지전망대에서 혜초총무원장과 백진결사회 회원 신도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OP점등식을 봉행했다.

진각종은 지난 6일 서부전선 509 OP에서 락헤통리원장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진기봉축점등법회를 개최했다.

총지종도 14일 강원도 제7사단 칠성전망대에서 위문품 전달식과 전방 OP점등식을 거행했다.

원효성사 열반 1310주기 추모대재

원효종, 16일 효창공원·부산 금수사서

민족의 큰 별이며 세계적인 대사상가 원효스님을 추모하는 추모대재가 원효스님 열반일인 오는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봉행된다.

대한불교 원효종(총무원장 무진) 주최로 오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효창공원내 원효스님 동상 앞과 원효종 총본산 부산 초량동 금수사에서 봉행되는 '성사열반 1310주년 추모대재'는 원효종정 법홍스님, 총무원장 무진스님등 원효종 스님들 및 각 종단 스님들, 신도, 신행단체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해 헌다 헌화 추모사 법어 권공 분향의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요식후 당일 오후 3시부터는 용산구민회관에서 최창규박사(서울대)의 '원효정신으로 밝히는 21세기의 대광명' 김상현박사(교원대)의 '동아시아 불교사에서의 원효의 위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다. (02)735-0501

태고종 범룬사 비구니 강원 재개원

국내최대 '백옥 관세음보살상' 봉안

파주 감악산 범룬사(주지 금봉)에 태고종 비구니강원의 재개원을 위한 11m의 11면 백옥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됐다.

지난 3일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 사정원장 인곡스님, 백련사주지 운경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혜일스님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봉안법회에서 종정 보성스님은 "이를 계기로 신심을 더욱 다져 후학양성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서원을 세우자"고 말했다.

중국 절강성 아미산에서 1년간 조성돼 이운에만 3개월이 소요된 백옥관음보살은 좌대 4미터등 총 높이 11미터이며 무게만도 90톤에 이르러 옥불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이다. 특히 절벽에 인공축대를 쌓아 봉안장소를 마련하고 기단에는 경주 석굴암의 11면 관세음보살상을 양각했다.

태고종 비구니 강원은 75년 현 종정 보성스님을 강주로 4년등안 개설했었으나 시설 미비와 건축불사로 인해 중단됐다가 이번에 범룬사에 재개원될 예정이다.



남한산성 걷기 성료

본사·마음의전화 주최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와 마음의 전화(대표 도각)가 공동으로 5월5일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협찬으로 추진된 이날 행사는 20가족 40여명이 참석해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 만해기념관 관장)의 현장 강의로 역사도 배우고 자연환경도 가꾸며 가족사랑을 느꼈다. 이날, 호국 성지 남한산성의 최초 사찰 망월사(주지 성법)도 참배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목탁소리

이 온 자 〈취재2부 기자〉

아무리 영화라지만…

"이 돌중으로 말씀드리자면, 서벽에 계집과 더불어 지내느라고 침이며 땀 피며 정액냄새로 하여 개 냄새를 풍기나니…" "나도 중은 중인디, 똥갈보구만이라우. 우리를 수도부라고 허요이" 요즘 한창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유리'의 주인공들이 내뱉어대는 대사의 일부분이다.(대본의 한부분)

영화 '유리'는 실험성이라는 명제를 등에 업고 영화 전편에 걸쳐 수행승의 적나라한 정사묘사와 연속되는 살인장면등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화면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첫시사회에서 영화를 본 조계종 총무원의 스님들은 영화 '유리'에 대해 자칫 불교 수행승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관객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폭 수정 삭제없이는 국내 상영불가라는 의견을 공륜과 하명중 영화제작소에 밝혔다.

그러나 '유리'는 공륜이 해외영화제 출품작에 한해서 무삭제 통과를 결정함으로써 현재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49회 칸느영화제에 출품돼 있다. '유리'의 국내상영은 칸느영화제가 끝나면 부분 삭제와 함께 곧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조계종은 지난 4월말 공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현재 영화 '유리'의 국내상영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 '유리'를 놓고 실험성이 풍부한 영화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영화사전심의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론은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칸느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을 받은 '유리'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전개할 항의의 강도가 더이상 이빨빠진 호랑이 수준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소리도 높다.

"실험성이 풍부한 파격적 영화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작품성으로 이어지는 영화의 완성도나 대중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시사회 참석자들의 말은 실험성 짙은 영화 '유리'가 파급할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자탤런트 나문희·김민희씨 '연극 나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연극 '어머니'에서 두 불자 탤런트가 주역을 맡아 연습에 한창이다. TV 드라마를 통해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고 있는 불자탤런트 나문희씨가 동숭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연극 '어머니'에서 거친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어머니 황일순의 질곡하고 생생한 일생을 그려낼 예정. 오는 18일부터 공연되는 이 연극에서 어머니의 어린시절은 똑순이로 알려진 김민희씨가 맡았다.

"오랜만에 연극에서 주연을 맡게돼 각오가 남다릅니다." 나문희씨는 이번 연극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힘과 느낌을 온몸으로 연기해 보일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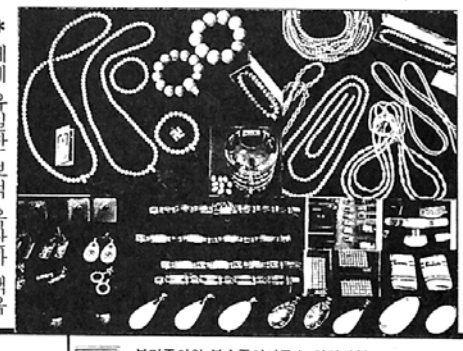
김민희씨는 "평소 깊이 존경하고 사모하던 대선배이자 연기스승이신 나문희선생님과 함께 연기를 하게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스텝진들과 함께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 마음을 바쳐라/신국판 267쪽/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91쪽/값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번째 책 신국판 273쪽/값4,000원

도서출판 불회/ 강북 영업부 통제동 성곡 2동 1269/ 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 (02)742-0172
판매보급처/ 통교서적총판 춘추사/ 전화 (02)730-9052/3/ 팩스 (02)723-0646
금강경 독송회/ 서울 예지빌딩 (02)742-0172/ 포항 우현동 빌딩 (0562)47-0303/ 포항 근당 정사 (0562)261-2211

불자생식
마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어도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주변의 여건이 맞지 않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식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생식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불자의 한사람으로 보람을 느끼며 더욱더 많은 스님들께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식을 통하여 성불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생식은 현미, 잡곡, 콩류, 야채류, 과일등 30여종의 원료를 동결 건조시켜 어떠한 첨가물이나 인공감미료, 방부제 없이 제조하여 휴대하기 편하고 먹기 쉽게 포장한 분말제품입니다.
아무쪼록 정진하시어 성불하십시요.
불자생식동우회
☎ 032-655-6111/3
☞단체로 구입하실때는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 수 후 : 박사과정 연수수료증 수여 (침구,기공)
■인 원 : 15명 이내
■출 발 일 : 1996년 6월 4일 (화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화 (02) 511-2026 · 2027
511-2028 · 1080
·팩스 (02) 511-108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상식의 대구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과학자의 관념능력을 넘어선 인식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뇌변증 90.9%, 심장질환자 92.9%, 류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눈동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갑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인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요통 84%, 조울,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현불뉴스

18일 세계만불전 법회

대한불교열반종 와우정사(주지 서해덕)는 18일 오전 11시 세계1만불 봉안과 건립을 위한 법회를 봉행한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추진되는 이번 세계만불전 건립법회에는 태국 미얀마 인도 등에서 보내온 4백기의 부처님이 전달된다.

96 불청 포교사업 선포

서울지구 21개 청년회는 지난 4일 청진동 만해교육원에서 96불청포교사업 선포식을 갖고 7월2일까지 3개월동안 포교기간을 설정했다. 서울지구청년회가 펼치게 될 포교사업은 △단오맞이 민속대동재 및 체육대회(6월9일) △전국불교청년대회(6월 15·16일)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친다.

불자 18명에 장학금

성남불교산악회(회장 임선교)는 지난 4월30일 성남불교신도회 회관에서 효행심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자학생 18명에게 장학금 2백70만원을 전달했다.

'학장부임준비위' 구성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9일 긴급 운영협의회를 열고, 송산스님의 학장사퇴에 따른 학장부임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종석)를 구성했다. 교수 교직원 동문 학생대표 각 2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준비위는 덕망과 경영능력 및 학문적 소양을 갖춘 스님을 추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문수사 산행법회

대원불교대학(학장 허성구)은 오는 19일 삼각산 문수사에서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법회에는 대원불교대학 재학생, 동문, 대원법사단원, 대원회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봉산 케이블카 반대

도봉구청이 도봉산역-도봉산 간장대 사이에 설치하려는 케이블카에 대해 교계와 환경단체가 환경파괴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봉산에 위치한 망월사와 천축사 등 사찰과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는 오히려 다수의 등산객을 불러들여 도봉산 황폐화를 앞당기는 반환경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또 주민들도 케이블카가 마을 위를 지나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계사 영산율원 개원

단위 사찰에선 처음…율원장에 철우스님

조계종 단위 사찰로서는 최초로 율원이 설립됐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조실 고송스님·주지 성우)는 지난 9일 영산율원(靈山律院) 개원 고불식 및 현판식을 봉행하고 4명의 학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전문적인 계율도량으로서 새출발을 하게됐다.

이로써 파계사는 심지율사가 신라 애장왕 5년(서기 804년)에 개창한후 근세에 이르러 계단 전계사인 故 일우 종수스님으로 이어지던 율맥을 다시 꽃피우게 됐다.

영산율원에서는 사미율·사분율·범망경 등을 2년간에 걸쳐 교수하게 된다. 각 단계는 논문이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졸업후 평생동안 계율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영산율원의 산파역인 율사 성우스님은 "29년전 철우스님과 더불어 해인사율원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전문율원을 꿈꿔왔다"며 "불교의 새로운 혜명이 이곳에서 비롯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금당을 개조해 만든 율원은 대소의 방 7개가 있으며 앞으로 시설확장을 통해 매년 6~7명 정도의 신입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날 영산율원의 운영위원장에는 보성스님이, 율원장에는 철우스님이, 유나에는 도일스님이 각각 부임했다.

한편 조계종 율원개원에 관한 구체적 법령이 오는 6월경에 통과예정으로 있어 영산율원이 종단의 정식인가를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율원개원과 관련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일타) 금강율원도 지난 4월초 총무원에 율원인가를 요청한 상태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파계사는 지난 9일 금당을 개조해 영산율원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 고불식에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비롯 해인사 율원장 증진스님, 송광사 율주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향적스님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동참, 육법공양 고불문낭독 영산율원생 입지게 순으로 진행됐다.

교회출석강요 교사 포천주민 고발검토

교회출석 강요로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사와 해당학교 교장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송우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이모교사는 담당학급 어린이들에게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 교단에서 노골적으로 특정종교 선교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본지 71호 15면 보도〉

본지 보도에 따라 이 학교 신모교장은 4월 26일자 지역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포천교육청은 신교장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의정부로 전근간 이모교사에 대해서도 교회출석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주민 포천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사과광고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한다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진학비용을 또 병원비로



5월에 만난 소년가장
불치병 '파부가' 앓는 김유성군

아픈몸으로 고입검정고시 준비
"컴퓨터 프로그래머 되고싶어요"

울긋불긋한 혈점, 혈변과 혈뇨 증세를 보이는 원인 모를 불치병 '파부가'로 이승과 저승을 헤매면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애타게 발원해 병상을 지키던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고아소년 김유성(16세).

신흥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식구들의 도움으로 퇴원 후 심신을 달래고 있는 유성이는 4살 때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 엄마의 가출로 혼자가 됐다. 홀로 남게된 유성이는 갑작스럽게 발병한 병마와 싸우면서도 우연히 인연이 돼 만난 섬돌야학 선생님이 마련해 준 가리봉동 방에 보금자리를 틀고 낮에는 주유소, 구두공장, 커텐공장에서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야학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밤잠을 설쳤다.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 많이 울었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모아온 돈을 또다시 병원비로 써야 했거든요." 유성이에게는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하는 아픔이 더 컸다.

그럴 때마다 유성이는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 복지관 총무국장 설웅스님과 보호자로 선뜻 나서주는 신윤진과장이 간혹 염하는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두손을 모은 유성이의 기도는 손에 어느새 뜨거운 땀이 배여나 있을 정도로 간절했다. 우여곡절끝에 퇴원한 유성이는 지난 4월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4과목이나 합격, 올 8월에 있을 시험에서 나머지 과목만 합격하면 유성이가 소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성이게는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경비 마련에 걱정이 앞선다.

장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싶다는 유성이의 간절한 소원이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보살펴 줄 후원자가 아쉽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서 9월9일~12일 열린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불교우호대회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3면〉

한·중·일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2차예비회의를 갖고 대회명칭을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로 명명하고 대회기간을 9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한 본대회의 주제를 '21세기에 있어서의 한·중·일 불교의 사명'으로 정하고 각국이 수정제안한 공동선언문 문안을 마무리했다.

이번 예비회담에는 방지하(한국수석대표·종단협부회장), 游骧(중국수석대표·중국불교협 비서실장), 水谷幸正(일본수석대표·전 교도불교대학학장)스님을 비롯 1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북경대회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서울대회는 미래에 있어 삼국의 불교가 해야할 일을 모색하며 대회기간중에는 삼국의 불교유물전, 영산재실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명락사·흥국사·보현사·소쩍새마을등
전국서 어버이날 노인위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계 제단체들이 펼치는 노인 위안잔치가 풍성하다.

어버이날부터 부처님 오신날까지 보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마련된 교계단체들의 경로잔치는 지난 6일 천태종 명락사(주지 도정)가 관악구내 노인 4백여명을 초청해 경노잔치를 펼친데 이어 정각노인대학(학장 안순진)도 용인 연꽃마을을 방문,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는등 20여 교계단체에서 경로위안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흥국사(주지 일문) 보현사(주지 일관)는 오는 15일 증계4동 삿갓봉공원에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꽃노인잔치'를 개최한다.

또 속초사회복지관(관장 지흥)은 오는 16일 속초 원각사에서 재가노인과 후원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에서는 '노인위안잔치'를 전개한다.

소쩍새마을도 오는 20일 원주 지역민을 중심으로 경노잔치 및 진료소 개소 및 재활작업장을 개장한다.

범종단 신도연합체 구성키로

부산불교신도회, 정관개정·법인설립등 추진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달 24일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명칭을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부산불교신도회'에서 '부산불교신도회'로 개칭하는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또 부산불교신도회의 성격 조항에 있어서도 조계종에만 한정된 신행단체 연합체에서 제종파를 초월하는 신도단체연합기구로 새로이 구성할 것 등을 의결했다.

이에대해 부산불교신도회 관계자는 "부산불교계가 그간 조계종뿐만 아니라 여타 종단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불교적인 정서로 흘러왔다"며 이번 정관개정은 조계종을 탈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파를 포함하는 조직 확대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류진수씨가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5대 회장에 유임됐다. 이에대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 신도조직의 발전적 형태로 본다"면서도 "법인설립 추진으로 중앙신도회의 위상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임종봉사·가정심방기도등 자비실천
'정토의 전화' 6월2일 발족

전화 한 통화로 임종과 관련된 불교식 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빈민 소외계층 및 일반 불자들에게 임종봉사와 가정심방기도 봉사를 목적으로 '정토의 전화(회장 대명)'를 개설, 오는 6월2일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불자연에서 원왕생교육을 받은 50여명의 수료생들이 중심이돼 발족하는 정토의전화는 발족식 후 개통, 본격적인 임종봉사활동에 나선다. 강남에서는 능인선원을 정점으로, 강북에서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토의전화는 무료장례염불, 극빈자 장의무료돕기, 비하라(불교 호스피스)봉사 외에도 무료급식, 무료진료, 불우이웃돕기, 기도 명상으로 이웃돕기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정토의 전화는 타단체 장의부와 연대해 불교장의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회장 대명스님은 "빈민소외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임종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토의전화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불자면 어느 누구나 전화해 임종에 대한 도움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불교학생회 활동 성취도 열악"

불자학생 374명 설문 법회위주 탈피 봉사프로 개발 절실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4월11일~26일까지 서울지역 사찰학생회와 종립학교 학생회원 3백74명을 대상으로 조계종 포교원 설문조사와 지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발표한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회 가입 시기에 대해 52.1%가 1년 미만이라고 답해 지속적인 활동이 부진해 학생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동기에 대해 자발적이다 38.2%, 종교활동을 하기위해서 36.4%, 학생회활동을 권유하겠다가 69.5%로 나타났고 응답자중 73.8%가 가입전 종교활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청소년 학술세미나에서 이광준교수(심리학 박사)는 "불교는 조직과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지도자를 효율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방기연씨(상담심리 전문가)는 "현재처럼 설법위주의 청소년 교화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며 "마음나누기 법회, 봉사법회, 선행법회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고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마음 고정관념 버리기

자기의 생각등, 고정관념이라는건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등,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의정이 솟구칠 때 마음의 싹이 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최신간

남전 NANSEN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값 5,500원

날아가는 새는 푸른 하늘에 발자국을 남겨 놓지 않는다!

깨달은 자들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붓다의 뒤도 따라갈 수 없다.
오직 그대만의 길, 그대 홀로 걷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대만의 존엄성이자 크나큰 자유를 의미한다.

남전선사는 선(禪)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남긴 몇 안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에 이르러 선은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대양이 되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켰으며,
그 〈함께 있음〉 안에 비로소 전체성과 기름이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펼쳐보이는 다양한 선의 세계를 접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변형시켜가는 전체적인 인간으로,
더 나아가 보다 획기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제 RINZAI · 조주 JOSHU · 마조 MATZU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법구경 ❶❷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탄드라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내 영혼이 눈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가지 명상 비법 무삭제 완역 공개!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신국판 / 전 4권 / 각권 값 6,5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건강백세 ⑬

얼굴

얼굴은 어느 부분보다 표피가 얇고 예민해서 외부 기상조건이나 내부상태 특히 감정의 표현까지 빨리 반영된다. 그것은 표재혈관이나 표재신경(表在神經)의 분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학에서는 '양경락(陽經絡)들이 얼굴에 산재한다'고 표현했다. 동시에 모든 감각기의 총본산인 뇌수(腦髓)에 가장 근접해 있어서 가장 빠르게 보고와 전달이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안색변화 심장·간장·신경등 이상 징후
중추성마비 난치예고…정밀진단 필요

창백한 얼굴은 빈혈이나 호흡계 질환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검은색은 신기능(腎機能)의 부조(不調)나 말기 적병변을 가진 것처럼 나타내며 붉은색은 다혈질로 심장혈압질환(心臟血壓疾患)을 갖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푸른색을 띨때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롭거나 간장계통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누런 색조를 띠을 때는 소화기 계통의 부조를 보일수 있어서 상대에게 근심을 줄 수 있고 실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지혜롭다. 물론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원래 안색이 그런 사람은 관계치 않을 수도 있으니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진단상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정색이 아닌 경우는 그런 질환을 가질 확률이 있으므로 유의함이 좋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말썽을 부리는 여드름의발생은 호르몬 분비와 관련있는 내분비성도 있고 체질적으로 지방을 표피로 풀어주는 특이한 체질로 인한 경우도 있다.

얼굴에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나 부분냉각이 오면 입이 틀어지고 눈이 덜 감기는 '안면신경마비증후군'이 온다. 소위 말하는 안면신경마비이다. 이 병은 치주염, 기타 전염병으로 인한 입과선염이나 타박으로 인한 신경장애로도 온다. 또 뇌혈관 손상으로도 오는 수가 있다. 중추성(中樞性)은 난치이고 다른 중환의 예고편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MRI등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국소 냉각성으로 오는 경우는 쉽게 호전되어 침치료 한두번에 호전되는 수가 있어 의외의 명의를 만들기도 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 ③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그림·이준석

"하루 한 두갑씩 피우던 담배를
부처님 앞에서 금연맹세 삼배후
담배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급히 가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급히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려하는데 이 왕이면 그래도 꿈속에서 들어갔던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었다.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을 보고 나와서 생각을 곰곰히 했다.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인지 그날부터는 죽대신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속이 편한 것이 아닌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꿈에서 본 스님께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가는 점은 도대체 어디를 백번 이상 올라가야 팔다리가 안 아프다는 건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소백산 꼭대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때는 음력 11월이라 몹시 추운 때여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갔다. 삼층 기도실 앞 구름 다리에서 젊은 기도객 삼사명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걸어오는데 얼핏 들으니 "적멸 보궁에 올라갔다 오면 땀이 많이 나와"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지난밤 꿈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나 하고 물어보았다.

"적멸 보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식당 뒤쪽으로 혹 올라가면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큰 산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삼보당에 계시던 천태종 1대 큰스님 산소인데 그곳이 적멸보궁입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내 판에는 부지런히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도 한시간 사십분이나 걸렸기 때문에 매일 삼십초씩 줄이면서 올라갔다. 하루는 집에서 구인사로 또 하루는 구인사에서 집으로 생강과 구기자 다린 약을 병에 넣어 짊어지고 다녔다. 그리고 매일 기도표를 한번씩 연장하며 나의 생활은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천태종 1대 큰스님 탄신일 며칠 전이었는데 점수실 근처를 지나다가 얼핏 보았다. 새로 오는 신도인 모양인데 벽에 모셔져 있는 사진을 보고 두손을 합장하여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 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사님입니다"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얼른 가서 참배를 드리고 보니 지난번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스님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기도실에 가보니 흡연에 관한 비디오테잎을 보여주고 있었다. 부처님은 담배 냄새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법문을 들었다. 정말 큰일이었다. 담배를 벗삼아 하루 두갑씩 피우는 나는 그후로 그나마 하루 한갑으로 줄이게 되었다.

대조사님 탄신일이 되었다. 낮에는 보궁에 올라가는 신도들이 많아서 나같은 불구는 여러사람에게 걸리적 거리기만 한다. 그래서 오후 해질 무렵에 올라갔다. 보궁에 참배를 마치고 구봉팔문 전망대까지 넘어가 큰 소나무 밑에 쉬다가 금연인건 알지만 아무도 없어서 담배 한개피를 꺼내어서 입에 물었다. 두어모금 빨았는데 갑자기 바위 뒤에서 "무엄하는 거냐"라며 고함을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열서너살쯤 돼 보이는 남자 아이가 반말로 호통을 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벌벌 떨면서 땅에다 버리고 지팡이로 끈 다음 재빨리 물어보려 하였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손자뻘밖에 안되는 아이가 너무 괘씸하여 돌아보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 내려가는 길을 보아도 아무 흔적이 없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다가오는 듯 했다. 내려가던 중 첫번째 휴지통에 담배와 라이터를 버리고 정신없이 기도실까지 내려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다. 이왕 안피우려 했으니 담배를 영영 피지 말자고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다짐을 했다. "부처님 저는 목영태이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히 담배를 안피우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명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저의 악업과 죄를 다 벗겨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하고 절을 세번 올린 후로 지금까지 담배를 금하고 있다. 혹시 친구들이 하나 건네주면 손이 나가다가도 깜짝 놀라며 부처님과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안피우곤 한다.

목 영 태
〈경기도 안성군 죽산리〉

♦ 'The man who is angry and bears hatred, who is wicked and hypocritical, who is deceitful,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사악해서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㉞

♦ 'whosoever in this world harms living beings, whether once or twice born, and in whom there is no compassion for living beings,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whosoever destroys or lays siege to villages and towns, and is known as an enemy,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포위하여,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Be it in the village or in the wood, whosoever appropriates by theft what is the property of others and what has not been given,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주지도 않는데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appropriate (v) 착복하다
*theft (n) 훔침, 절도
*property (n) 재산, 소유물 *hatred (n) 원한, 증오
*wicked (a) 사악한, 부도덕한
*hypocritical (a) 위선자적인
*harm (n) 해악, 해
*whether A or B (A 든지 B 든지간에)
*compassion (n) 동정심
*destroy (v) 파괴하다
*lay (v) 놓다, 배치하다
*siege (n) 포위

오중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神을 찾는 늑대 ㊹

로버트 M 피시그

파이드루스는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높은 예지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예지를 일반적인 지식의 탐구에 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특별한 표적을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 자신의 예지를 겨누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파이드루스에 관한 이야기는 보통 사람의 인생에서는 믿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이 이야기는 나와 그의 관계에 대한 회상이다.

파이드루스는 이미 열다섯 살때 대학의 과학과정 1년을 끝내고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미적(美的)으로 무의미하며 정신적으로 파산상태'인 과학의 합리적 경직성과 충동을 일으키고 대학을 떠나 표류하게 된다. 그는 물질의 고산지대가 아니라 마음의 고산지대에 오르고자 한다. 그는 모세나 그리스도, 붓다와 선(禪)의 스승들, 플라톤과 노자, 데카르트, 루소, 제퍼슨과 같은 선구자들이 오르던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신 마음의 고산지대에 오르기 위해 동양과 서양의 정신적인 산맥을 기어올라 갔다.

붓다의 지혜는 꽃 한송이에도 디지털 컴퓨터 회로에도 있다



그림·심민섭

파이드루스는 현대인들이 모세나 그리스도, 붓다, 플라톤, 데카르트와 같은 귀신들의 나직한 음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같이 현실과 화해할 길이 전혀없는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이 귀신들의 음성과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마침내 정신이상이라고 할 자아의 착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당시 파이드루스는 질(質, Quality)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는 대학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있다. "질은 붓다이며 과학적 현실이며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개인적인 체험의 정상(頂上)에서 질과 붓다의 형이상학적 상관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장관설(壯觀說)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질에 대한 철학적 설명은 진(眞)인 동시에 위(爲)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그것이 철학적 설명이기 때문이다. 철학적 설명이란 분석의 과정이다. 즉 주어와 술어로 분해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질이라는 말은 주어와 술어로 갈라 놓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질이 너무 신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붓다의 지혜나 신성(神聖)함은 높은 산의 정상이나 아름다운 꽃송이에도 깃들지만 또한 디지털 컴퓨터의 회로와 모터사이클의 전동장치에도 깃들여 있다"

파이드루스가 이처럼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며 넋이 빠진듯한 이상한 표정으로 살아가자 사람들은 그를 더욱 적대시했다. 적대시 당하는 그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침내는 사람들의 파이드루스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이르러서 마침내는 사상관찰재판소에서 영장이 발급되고 그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필자약력

미국출생인 피시그는 '선을 찾는 늑대'(원제:선과 모터사이클 수리기술)를 펴낸이후 '라일락'을 출간했다. 그는 중년이후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3년 고려원에서 번역출간된 이 소설의 요약은 여자인 윌지스님(수국사)이 맡았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꾸며질 각종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